



2023 Arti’s Pick

2023년 구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기사는?

002

02. February

A New year,
A New Beginning
새 해, 새로운 시작

004

03. March

Blooming
Spring
피어오를 봄을 향해

012

04. April

Cherry Blossom
Avenue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027

05. May

The Joy of
Being Together
함께 있다는 기쁨

045

06. June

Feeling like Flying
in the Sky
하늘 위를 나는 기분으로

061

07. July

Fantastic Summer
Bookcation
책과 함께 환상적인 여름 휴가

079

08. August

Diving into
Summer
여름 속으로 다이빙하기

100

09. September

Colors of
the Autumn
가을로 물들어가는 색채

117

10. October

Autumn Moolight
Festival
가을 달빛 축제 속으로

140

11. November

A Symphony of
Autumn Hues
가을빛의 교향곡

156

12. December

In Snowfall,
Year’s Last Chapter
흩내리는 눈, 한 해의 마지막 장면

177

2023년 구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기사는?

올해 노원아띠에 실린 기사 중 아띠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기사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행사를 기다렸을지 한 번 만나보자.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문화재단

압도적 사랑을 받은 가을음악회

가을이면 찾아오는 대규모 야외공연인 가을음악회에 대한 소식이 가장 많은 구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유명 가수들의 무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선선한 가을 바람 맞으며 가족들과 즐기기에 좋은 공연이기에 노원구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서울시립과학관을 찾아가서 직접 소개하는 기획 기사와 여름 특집으로 도서관에서의 북캉스를 추천하는 기사가 2,3위를 차지했다.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가을밤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2023 가을음악회>로 초대합니다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에서 세상을 감각하기



이번 여름은 도서관으로 북캉스 떠나볼까요?

3,357회

790회

603회

노원아띠 기사 조회수 Top 20

순위	발행호	제목	조회수
1	9월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가을밤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2023 경춘선술길 가을음악회>로 초대합니다	3,357
2	7월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에서 세상을 감각하기	790
3	7월	이번 여름은 도서관으로 북캉스 떠나볼까요?	603
4	6월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서울의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	504
5	5월	숨겨진 벚꽃 명소, 노원 육군사관학교에서 보낸 한나절	497
6	6월	시각예술 신진작가 4인 인터뷰③ 최서현	392
7	2월	노원에서 할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388
8	5월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으로 들어온 마들장	372
9	4월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	351
10	8월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구 청년의 '내일'을 만나다	332
11	3월	소리꾼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말하는 원숭이	332
12	4월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 2023년 시농제(始農祭)	321
13	8월	바다와 나, 게임과 함께 즐기는 해양전시 체험	290
14	4월	모두가 참여하는 돌잡이, 정담 돌잔치 초대장	290
15	5월	노원문화PD들의 활동을 돕는 숨은 조력자들, 권역별 담당자를 소개합니다!	255
16	4월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태릉? 그냥 지하철 입구역 이름 아니었어?	238
17	10월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시장도 진화한다! 정겨운은 그대로, 거리는 더 가깝게!	224
18	8월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에서 만나는 '한여름 밤의 꿈'	221
19	11월	Calendar	194
20	7월	당신에게 딱 맞는 문학을 처방해드립니다	192

2023.11.28 기준

아띠 기자단이 직접 가보고 기록한 노원구의 문화명소

올해는 아띠 기자단들이 특별히 기획한 특집 기사인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를 통해 노원구 곳곳에 있는 문화명소를 탐방했다. 노원구에 오래 살고 있어도 가볼 생각을 못했거나 호기심만 있었던 공간을 미리 가보고 소개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기자단들의 바람 덕분일까. 많은 구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높은 조회수를 달성했다.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서울의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구 청년의 '내일'을 만나다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태릉? 그냥 지하철 입구역 이름 아니었어?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시장도 진화한다! 정겨운은 그대로, 거리는 더 가깝게!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많은 노원구

올해 특별 기사는 또 있었다. 노원문화PD 1기들이 직접 매달 중랑천환경센터와 노원에코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기를 기사로 남겼다.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환경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하거나 김장을 하고, 장터를 열어 각양각색의 활동을 했다.

내년에도 중랑천환경센터와 노원에코센터에서는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니 노원아띠와 함께 참여해보자.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으로 들어온 마들장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 2023년 시농제(始農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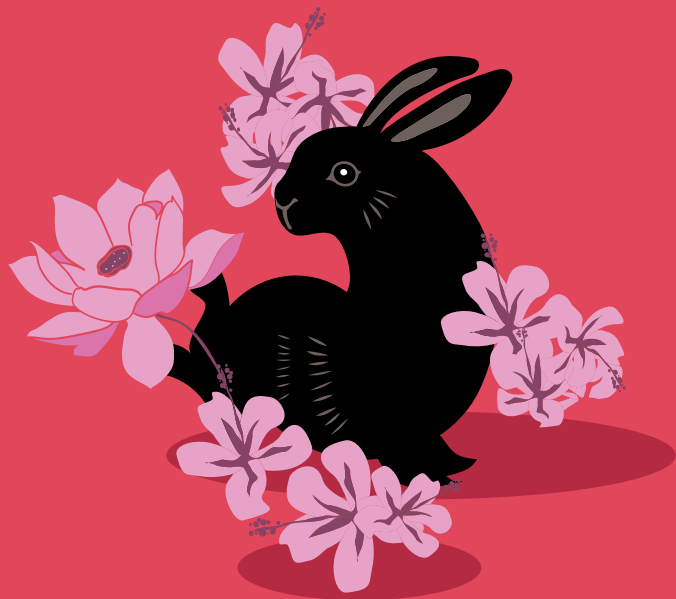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노원에코센터에서 만나는 '한여름 밤의 꿈'

A New year, A New Beginning

02. February

새 해, 새로운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끝은 양력으로, 한 해의 시작은 음력으로 친다는 말이 있다.
크리스마스를 보낸 12월 말부터 설 연휴가 오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의 공백 속에서 우리는 아쉬웠던 일과
속상했던 과거를 한 칸에 접어두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언제 해도 설레는 소망을 써 내려간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노원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아마 노원 곳곳에서 우리들이 작게 적어 놓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주민과 함께 노원의 문화를 만드는 재단을 꿈꿔봅니다

노원문화재단 강원재 신임 이사장 인터뷰

2019년 문화재단이 설립되며 노원은 유례없던 알록달록한 세상이 펼쳐졌다.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노원’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 활동들이 이어진 것이다.
5년차를 맞은 재단의 앞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새해를 맞이하며 노원에서의 첫발을 내딛은 강원재 이사장에게 직접 물었다.
그가 꿈꾸는 노원의 문화예술은 어떤 모양일까.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나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셨는데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중첩되는 일 같아요. 문화예술 경영과 기획은 아주 익숙한 일이긴 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원구에 와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 재단 직원 그리고 행정가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다양한 협력 관계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하게 될지 여러 고민과 기대 사이에서 흥미롭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꿈과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소통하는 것이 문화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고양시켜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문화라는 건 복수형이거든요. 단수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예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꿈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 때 우리 가족의 문화, 청년의 문화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활기차게 돌아가면 문화가 활성화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재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역 안에서 문화와 예술이 잘 작동된다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에는 이미 문화적인 삶, 예술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결국 그분들을 발견해서 공공의장에서 활동하도록 돕는 게 재단이 할 일인 거죠. 그러다 보면 바빠서든, 관심이 없어서든 문화와 예술에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도 또 다른 이야기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하고,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노원만의 문화 철학을 찾는 전환의 시간

재단은 설립 이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지켜보셨을 때 노원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는 점과 반대로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원에 와보니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공간들도 많고요. 구정의 정책이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재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구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원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도 많고 여러 활동들도 다채롭게 하고 있지만, 사실 행사가 많다고 그게 도시의 철학이나 문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구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느끼는 게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그 전에 없던 것들, 결핍되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한 단계였다면 이제는 지역만의 철학과 정신을 만들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시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견고하게, 아띠는 두툼하게

결국 노원문화재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노원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노원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이에요. 결국 그게 재단의 정체성이고, 이 두 가지 임무를 잘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들이 재단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체험하고 소비하는 행사나 사업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직접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생산해내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이사장님과 재단의 모습은 어떠길 바라시나요?

임기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의 문화 주체들이 재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일들을 더 창의적이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면 좋겠어요. 그런 성과를 재단의

직원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역 예술가 그리고 구민들과 일을 협력적으로 잘 해가는 기관 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띠의 독자 그리고 지역구민, 예술가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살지만, 사회에서 규정한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삶을 평가 받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삶과 취향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문화와 예술의 영역 안에서는 반목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 안에서 진정 바라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길 바라요.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같이 우리의 삶을 꿈꾸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아띠>에도 지역의 기자단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구민들이 직접 지역 안의 이야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되는 경험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아띠에 참여해서 잡지가 아주 두꺼워지면 좋겠어요.(웃음)

..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노원에서 할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에는 50도의 가까운 폭염과 폭우, 홍수,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 이제는 환경에 관한 관심을 넘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각과 실천이 중요한 시기이다.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에서는 노원구에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다행히 노원구는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등 환경 관련 기관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를 중심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 이진숙·이현주(노원문화PD 1기) 사진.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 함께하는 기관 ..

노원 에코센터

노원에코센터와 2023년 ‘내일’을 위한 동행을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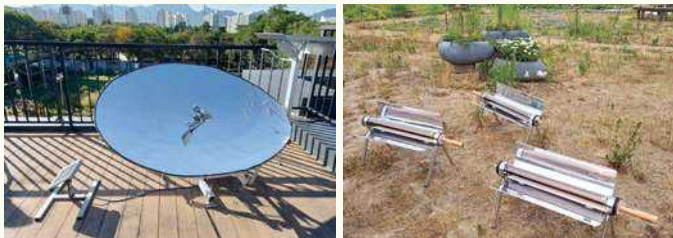
녹천교를 건너 하계동 방향 오른쪽으로 마들근린공원에는 넓찍하게 자리 잡은 녹색 이퀄라이저 문양의 노원에코센터 와 아기자기한 텃밭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곳이지?’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노원에코센터는 2012년 2월 10일 개관했다.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 ‘탄소제로 하우스’로 에너지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거점 공간이다.



노원에코센터는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환경 주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프로그램과 단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교육주제는 6가지로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의 관계를 알아보는 ‘생태환경’, 친환경 생활 노하우를 알아보는 ‘에코디자인’, ‘환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종합환경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직업체험·에너지 캠프 ‘청소년 프로젝트’, 그리고 주민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부터 다양한 에코 제품들이 눈길을 끌지만,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햇빛마루(옥상)에 있는 태양열로 1L의 물을 4분 만에 끓이는 ‘쉐플러 조리기’와 계란과 고구마를 태양열로 조리하는 ‘솔라오븐’, 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한 ‘태양광 전지판’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원에코센터 임경희 팀장은 노원에코센터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노원에코센터를 편하게 사랑방처럼 이용하면서 환경 문제를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2023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23년, 노원에코센터와 함께 노원의 ‘환경과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노원에코센터

- 📍 서울 노원구 덕릉로 460 마들근린공원 내
- 🌐 <https://www.nwecocenter.or.kr>
- ☎ 02 3392 4910
- 🕒 화~토요일 10:00~17: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푸른 심터 노원의 중랑천

중랑천은 어느새 노원구민에게 운동과 휴식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중랑천을 걷다 보면 자연이 주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곤 한다. 많은 생명체가 찾아오는 깨끗한 중랑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중랑천환경센터가 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2016년 5월 26일 개관 이후 다양한 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서울 유일의 하천환경센터다. 중랑천환경센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천환경교육 ▲지역에서 행동하는 하천봉사활동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하천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랑천환경센터 1층과 2층에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물 환경교육과 하천 환경보호 활동을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중랑천 자연여행, 내가 그리는 중랑천 생물 친구들, 물방울의 여행, 물사랑 OX퀴즈, 빗물의 순환을 보여주는 재밌는 체험 부스들이 전시되어 있다. 노원아띠 3월호에서는 중랑천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 이야기 ‘중랑천 조조 탐조’와 ‘수달과 함께 밤을’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함께하는 기관 --·

중랑천
환경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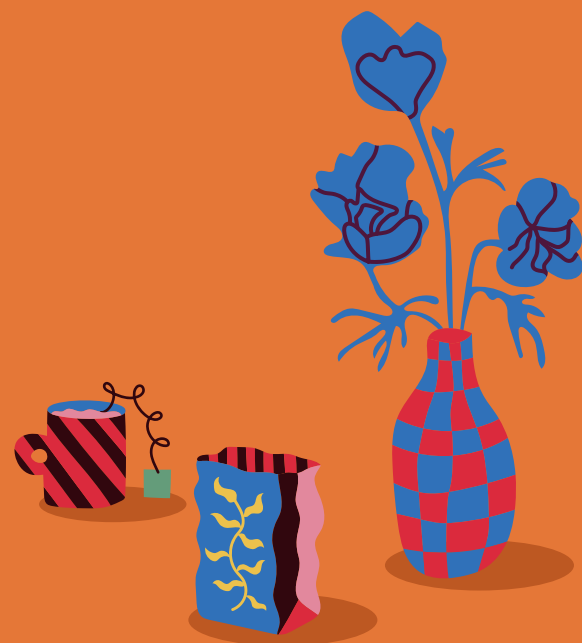
중랑천환경센터

- 📍 노원구 덕릉로 430
- 🌐 <https://www.jrecocenter.or.kr>
- ☎ 프로그램 02 938 9520
자원봉사 02 938 9525
- 🕒 화~토요일 10:00~17: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Blooming Spring

피어오를 봄을 향해

03. March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절기에 따라 땅 위를 덮고 있던 눈이 녹고 새싹이 피어난다. 계절이 바뀌는 일은 매년 봐도 경이롭다.
돌아오는 봄에는 어김없이 새 학기도 시작되고, 새해보다 더 진득한 두근거림도 찾아온다.
평소 걸던 산책길에도 알록달록 꽃이 피겠지. 봄맛이를 하듯 노원문화재단도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설명회로 3월을 열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노원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눈에 띈다. 올해는 노원에서 또 어떤 다채로운 이야기가 벌어질까.
언제나 봄날은 기대 만발이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노원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인 지원

2023년 노원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2023년 노원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예술인 지원에 적극적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과 생활문화 예술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여건 개선에도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문화재단



지역과
생활문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노원문화재단은 지역과 생활문화 예술을 위해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속해왔던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전시 분야의 동아리 55개 팀에 각 20~40만원을 지원하며, 활동제안 선정 단체 5개 팀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관내 생활문화동아리에게는 공연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나눔사업’ 3가지도 있다. ‘노원 즐거운 콘서트’, ‘돗자리 영화제’, ‘찾아가는 연극교실’은 각각 개인 및 단체에게 최대 8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하며, 3월 3일부터 17일 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관내 분야별 전문예술인과 청년예술가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상계예술마당 전시지원사업’, ‘시각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활성화사업 예술확성기’,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사업’이 그것이며, 활동과 공간을 지원하는 등 사업별 연계가 높아 예술인들의 활동에 연속성을 보장한다. 각 사업별 접수기간과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부 시스템을 통한
예술인 지원 확대

재단은 올해부터 기증과 기부 시스템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부를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 공연과 초대 및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각각 ‘문화사업 후원’과 ‘재능나눔 후원’으로 나뉘며 ‘문화사업 후원’은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4개 팀을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능나눔 후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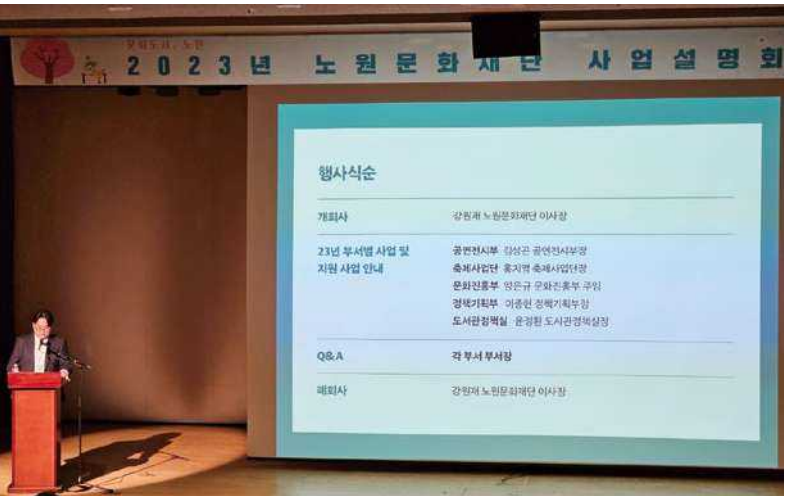
7월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재능 나눔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에 공모는 노원구 거주 예술인이거나 노원구 문화예술 활동

예술인 중 사업자 보유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재능 나눔 후원과 클래스를 신청하고 싶으면 재단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전문예술인
지원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

재단은 또한 지속적으로 예술인의 활동과 창작 여건을 위한 확대를 늘려가고 있다. ‘예술 작품 창·제작 워크숍 사업’의 경우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거리작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작품이 배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극, 무용, 음악, 마임, 영상, 설치, 연희 등 공공예술 형태의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는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노원구를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꾸준히 운영해온 예술인 지원상담소인 ‘노원하랑’ 운영을 통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술인 지원 형태를 늘려간다. ‘노원하랑’을 통해 재단은 예술인 지원금에 대한 안내 상담을 지원하며, 예술활동 증명, 창작지원금 신청 그리고 노원문화지도 등록을 지원한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상담과 예약 방문하면 된다.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향해

어쿠스틱 밴드 오티비OTB 인터뷰

울컥할 때가 있다. 가망 없다고 놓아버린 꿈을 이뤄낸 사람들의 빛을 볼 때,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어둠 속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경외와 질투의 마음을 동시에 느낀다.
그리고 자꾸만 시선이 간다, 내가 놓쳐버린 빛을 향해.
어린 시절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에 몸을 던져 달려온 사람들을 만났다.
우연히 만나 필연처럼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그들 말대로 유일무이한 컨셉과 구성의 어쿠스틱 밴드 오티비OTB였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오티비OTB

반갑습니다. 아띠 구독자분들에게 오티비OTB를 소개해주세요.

한울 대한민국의 유일한 컨셉의 신개념 어쿠스틱 밴드 오티비OTB입니다! 보컬-비트박스-기타의 유니크한 3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3년에 팀 결성 당시, 홍대에 있는 옥탑방에서 음악 생활을 시작하면서 '옥탑방'의 발음을 영어 이니셜로 착안했고, 누구나 의미만 알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티비OTB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팀을 어떻게 결성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기찬(마이티) 사실 저와 대환이는 원년 멤버가 아니에요. 제가 리더인 한울 형과 만나서 아카펠라를 시작하고 형이 했던 오티비OTB라는 밴드를 같이 하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한울 초창기 팀이 버스킹을 비롯하여 단독 콘서트,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여러 기획사에도 몸담아보면서 음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득이 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음악 생활을 모색하다 아카펠라 그룹을 하게 되었고, 기찬이를 만나게 되어 2022년부터 현재의 오티비OTB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드럼 없이 비트박스와 기타로 세션을 구성한 게
독특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한울 다른 팀과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세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비트박스 퍼포먼스가 다른 타악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사운드와 FX효과음을 구사하기 때문에, 어쿠스틱 하면서도 결코 어쿠스틱 하지만은 않은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밴드 포지션을 축구로 비유하자면 보컬이 공격수, 건반이나 기타가 미드필더, 베이스가 수비수, 드럼이 골키퍼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세 명 전부 다 공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이 잘 어우러지고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개개인의 능력과 캐릭터가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모두 빛날 수 있어요. 셋째는 악기가 기타 하나라 더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티비OTB의 대표곡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나요?

한울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라면 먹을라면'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늘을 걷는 남자'는 동명의 영화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작곡한 곡인데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을 보며 저의 시행착오를 이입해서 만들었어요.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노원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기찬(마יתי) 제가 노원구 주민이라 당현천에서 하는 <즐거운 콘서트>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멤버로 한 공식적인 첫 행사였어요. 다들 너무 즐거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았죠.

한울 작년 <노원탈축제>에서도 공연을 서기로 했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15분 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올해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웃음)

저도 올해 꼭 오티비OTB 공연을 보고 싶어요. 또 어디에 가면 오티비OTB의 공연을 볼 수 있나요?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기찬(마יתי) 아직 올해 공연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꾸준히 활동할 예정이에요. 인스타그램 계정 'otb_acousticband(오티비_어쿠스틱 밴드)'에서 공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 밴드 오티비를 검색하시면 공연 실황도 보실 수 있어요.



오티비OTB의 앞으로 1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찬(마יתי) 각자의 실력을 쌓으면서 팀이 성장하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걸 결정짓는 게 앞으로의 2년 같아요. 그렇게 10년 지나면 멤버 모두 외제 차 타고 있지 않을까요.(웃음)

대환 되든 안 되든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지금 분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음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주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활동하며 지내고 싶어요.

소리꾼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말하는 원숭이

요즘 국악, 어린이 소리극

2023년 노원어린이극장의 기획공연으로 국악극 <말하는 원숭이>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대에 올랐다. 판소리 용어로 '기교'라는 뜻을 가진 전통예술 단체 '타루'는 경계 없이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자유로운 창작을 하는 단체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중도를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조화, 율림, 창작을 주요 가치로 삼고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공감을 나누며 영감을 전하고자 한다는 타루의 <말하는 원숭이>는 어린이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글. 손혜리(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따리 따리 보따리 이야기 나오는 보따리~”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말하는 원숭이>는 판소리북, 25현 가야금과 동해안별신굿 장구, 기타, 반도네온 등 처음 보는 악기들의 이름과 소리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소리꾼이 “그때여”라고 하면 어린이

들이 “얼씨구”하는 추임새를 알려주며 공연은 시작되었다. 소리꾼들이 객석 뒤에서 나타나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며 무대로 오른다. 아이들은 공연이 시작될 무대를 바라보다 뒤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뒤돌아 코앞까지 다가온 소리꾼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나오는 상자

극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파도처럼 불러온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과와 바나나, 대나무가 상자에서 나오자 아이들은 또 무엇이 나올지 순수하고 투명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본다. 무대에 올라 직접 상자 속에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오자 아이들은 너나없이 손을 들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상자 안에서 나온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동요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구성진 국악의 매력을 더해 모두가 아는 동요였지만 조금 더 국악극의 형태를 띄었다.

아이들은 “왜 길면 기차가 아니고, 대나무냐”며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에게 물으며 공연장을 소란스레 만들었다. 그 또한 아동극의 매력 중 하나였다.

상자 안에서는 흥부놀부전의 이야기에서 착안한 것인 지, 욕심 많은 형과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동생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양보한다”라는 허무맹랑한 형의 말에도 넙죽 엎드려 고마워하는 마음 착한 동생이다.



동생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신묘한 원숭이를 만나다

추운 겨울날, 동생이 나무를 하러 산에서 만난 원숭이는 신묘하게도 동생의 말을 흉내 내고 따라 한다. 동생은 갈 곳 없는 원숭이를 거뒀 형제처럼 지냈는데, 동네 사람들은 신묘한 원숭이를 구경하러 동생 집으로 몰린다. 동네 사람들에게 구경값을 벌여 크게 성공한 동생의 소식에 욕심 많은 형이 찾아오면서 불행이 시작된다.

공연의 후반부는 스포일러라 말할 순 없지만, 원숭이의 마지막 선물을 표현한 장면은 어른들에게도 탄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장면은 이 공연의 백미이니 꼭 가서 보셨으면 한다.

소리꾼의 기량도 상당했는데, 한 소리꾼은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형님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등 흔히 말하는 부캐들을 잘 표현해내는 모습이 어른들의 눈도 충족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어른들과 손을 잡고 극장을 나서는 아이들이 “따리 따리 보따리 이야기 나오는 보따리~” 하고 흥얼거렸다. 국악이라는 장르를 아동극으로 표현한 이 공연은 국악을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멋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국악극
말하는 원숭이

- 🕒 2023.2.16(목)~18(토)
- 📍 노원어린이극장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수학하는 마음

노원수학문화관: 수학과 푸르고 둥글게

청소년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무엇이었는데?

필자는 현재 30대, 노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공연예술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으로 평생 일관되게 수학을 어려워했다. ‘만약 내가 청소년기에 노원수학문화관에 갈 수 있었다면?’ 상상해 본다. 이 기사는 이러한 푸른 상상과 수학에 뽀족한 각을 세웠던 기억이 노원수학문화관을 만난 이야기다.

글. 사진. 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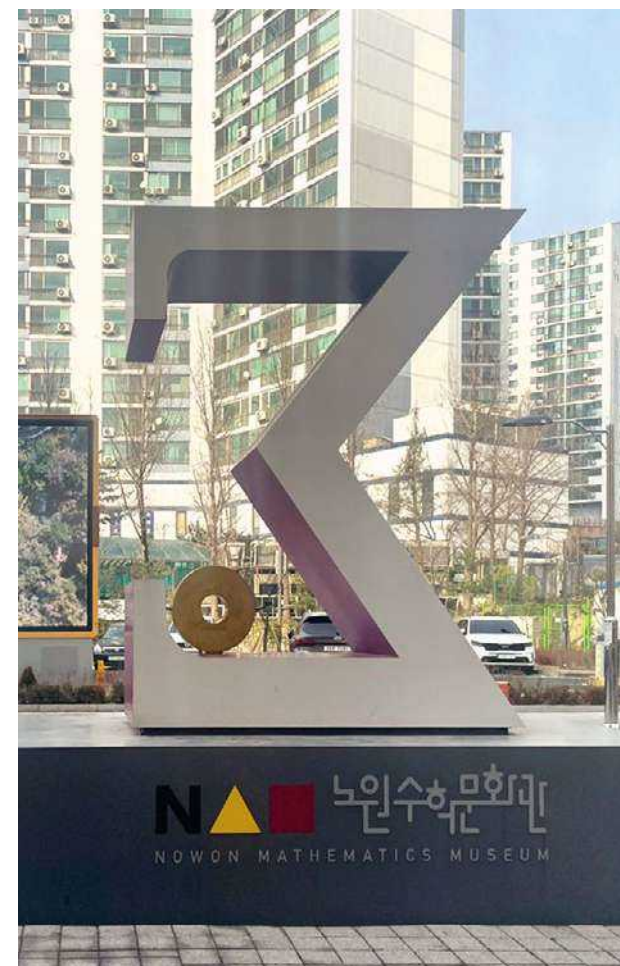
우리 접점을 좁혀보자!

학창 시절, 수학은 필자에겐 ‘벼랑 끝’ 과목이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면 흡사 낭떠러지에서 전투를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긴 수식 속 숫자와 기호들은 전투 대원 X명이고 이들에게 대적하는 필자는 달랑 한 명이었으니 매번 X:1의 불리한 전투였다. 점점 더 가까이 수학 부대가 몰려온다. 포기는 곧 추락이었기에 고전(苦戰)을 면치 못했다. 싸움 방식은 대개 교과서의 모든 예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공식과 유형을 외워 고식지계(姑息之計)로 필요한 점수에 도달하는 식이었다.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이 다가온다. 어느덧 벼랑 끝에서 정답을 도출한다.

∴ 휴전 선언! 우리 접점을 좁혀보자!

30대가 되어 방문한 노원수학문화관은 오랫동안 수학에게 겨누 전투용 펜 자루를 내려놓게 했다. 수학하는 뽀족한 마음이 어떻게 조금이나마 둥글게 바뀔 수 있었을까?

노원수학문화관은 중계동에 있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직각삼각형으로 설계된 박물관이다. 당현천 산책로와 바로 붙어 있어, 쉽게 눈에 띄는 곳이다. 내부로 들어가 삼각형 구조의 공간을 거닐다 보면 ‘아! 내가 수학에 대한 장소에 있지?’하며 몸으로 수학을 느낄 수 있다.



노원수학문화관은 총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마다 체험전시관이 있어 각기 다른 테마의 수학에 관한 전시를 선보인다. 1층의 체험전시관은 '수학 놀이터'로 유아부터 초등 1, 2학년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교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2층의 체험전시관은 '수학과 세상'으로 수학 역사의 흐름과 중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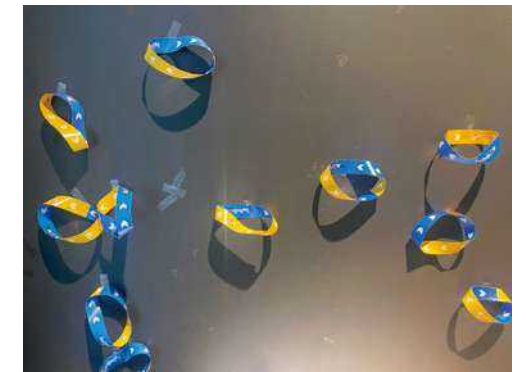
3층의 체험전시관은 '수학과 예술'인데, 필자는 공연예술에 대해 글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3층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수학이 어떻게 세상에 스며들었는지 예술을 거쳐 알게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해온 했다. 흔히들 멋진 풍경을 보면 '예술이다!'라고 감탄하지 않는가. 이토록 예술적인 자연은 조물주의 치밀한 계산으로 탄생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례, 리듬, 조화와 같은 조형미를 자연에서 발견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상이 어떠한 질서정연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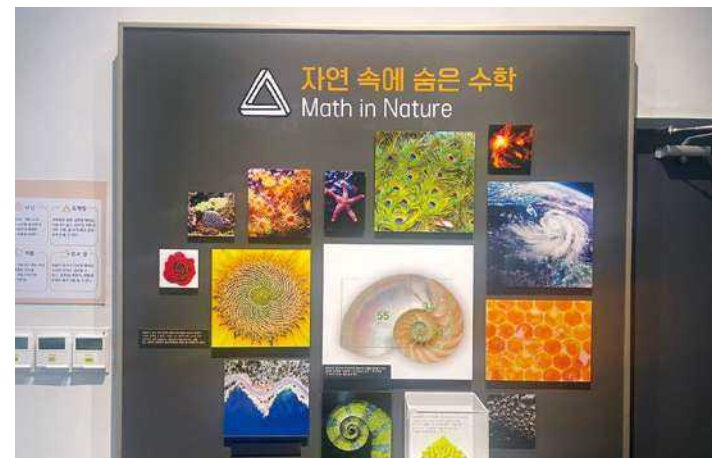
수학과 아름다움에 관해 '원근법' 이야기를 해본다. 연극사에서 무대미술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이다. 원근법이 개발되며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무대의 공간감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수학을 알면 세상이 가진 아름다움의 어떤 부분을 깊게 볼 수 있다.

또한 3층에는 '수학영상실'이 있다. EBS 지식채널 mathematics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바코드 숫자의 비밀, A4용지 규격의 비밀에 관한 영상을 보았다. 바코드는 수학으로 만들어진 약속의 언어이며, A4용지의 규격은 루트(√)를 사용한 덕분에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세상의 아주 사소한 비밀 같지만, 수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감춰진 진실이었다. 수학영상실을 다녀오면 익숙한 사물을 통해 수학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노원수학문화관은 교과서가 주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삼각형의 동선, 층별 테마 등 공간의 모든 요소들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해설 단체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성인이지만, 청소년과 함께 체험해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학과 접점이 멀었던 세월이 존재했고, 그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청소년과 어른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던 사람도 수학을 통해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수학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을 테다.



노원수학문화관을 다녀오며 수학과 달콤한 파이(π)같은 관계를 상상한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꽤 서먹했던 수학과 동그란 파이를 아름답게 8 등분으로 나눠 먹어본 것 같다. 대입을 준비하던 파릇파릇했던 시절, 수학과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모난 마음이 긴 시간 끝에 조금이나마 둥그러졌다.



노원수학문화관

-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9길 28
- 🌐 <https://www.nowon.kr/math/>
- ☎ 02 2116 2181
- 🕒 화~일요일 10:00~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

←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중랑천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다

겨울철새부터 수달까지...

중랑천환경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생물들

‘조조탐조’, ‘수달과 함께 밤을’, ‘도시어부’...

중랑천환경센터의 프로그램을 쫓 살펴보니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보였다. 도심하천인 중랑천에는 생물이 많이 살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그 편견이 부끄럽게도 중랑천은 물새, 민물고기를 비롯해 수달까지 다양한 생명이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번 <노원아띠> 3월호에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중랑천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났다.

글. 사진. 문화진흥팀



새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 조조탐조

프로그램명인 ‘조조탐조’는 이른 아침에 새를 관찰한다는 뜻이다. 활동가들은 주로 이른 아침, 중랑천을 걸으며 새들을 살핀다. 이날은 오전에 만나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하천을 걸으며 새를 관찰했다.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부와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합류부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철 고방오리, 댕기흰죽지 등 다양한 겨울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노원구 관할 중랑천 지역에서도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37종이, 2020년에는 45종이, 2021년에는 49종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2월에 관찰되는 겨울철새들은 논병아리, 물닭, 쇠오리, 재갈매기, 청둥오리 등이다. 텃새인 검은등할미새,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등도 볼 수 있다. 탐조를 나서기 전, 강의실에서 새에 대해 짧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관찰은 30분~1시간 남짓 진행됐다. 논병아리, 재갈매기, 청둥오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새들은 내 생각보다 더 귀엽고 생생했다. 이렇게 가까이서 새들을 만날 수 있다니! 어린이는 물론이고 성인들도 신기해할 경험이었다.



수달 아크릴 등
만들기



중랑천에 수달이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놀랍게도 2020년 이후 한강 곳곳에서 출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중랑천에서도 2021년 9월 수달이 관찰되었고, 2022년에는 수달 3마리가 관찰됐다.

‘수달과 함께 밤을’ 프로그램에서는 수달과 수달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수달 무드등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중랑천에서 발견된 수달의 흔적을 CCTV 영상을 통해 관찰했다.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도심하천에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그리고 수달의 발자국, 먹이, 그리고 똥까지 수달의 생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간중간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사진들과 퀴즈가 숨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다.

수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뒤, 수달 무드등을 만들었다. 아크릴판에 수달 그림을 새기는 간단한 과정이었는데, 수달의 모습을 직접 새기고 나니 수달과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랑천의 생명들을 지키려면?! '물사랑DAY' 친환경 비누 만들기

우리가 관찰한 새들과 수달이 중랑천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첫걸음도 역시 중랑천환경센터 '물사랑DAY'에서 시작할 수 있다.

'물사랑DAY' 프로그램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지구의 물과 물 사용량, 물 발자국, 그리고 수질 오염에 대해 간단히 배우고, 환경보호의 첫걸음으로 친환경 비누를 만든다.

화학 주방세제와 비누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배웠다. 합성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물질로 비누의 세정력을 높인다. 하지만 합성계면활성제가 하천에 흘러 들어가면 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 햇빛,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수질 자체의 자정능력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화학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비누 베이스를 사용해 친환경 비누와 주방비누를 만들었다.



비누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누 베이스를 깍둑썰기해서 녹이고, 베이킹소다와 오일을 넣는다. 집에서 혼자 만들었다면 번거로웠겠지만, 여럿이 함께 만드니 재밌고 금방 끝났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기후행동이 고민된다면, 비누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

중랑천환경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매월 25일 중랑천환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이 생겼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한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Cherry Blossom Avenue

04. April

흘날리는 벚꽃 아래서



오랜 시간 답답하게 막혔던 숨통이 트였다. 이제는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낯선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들도 있다. 4월에는 어김없이 꽃이 핀다. 봄날의 꽃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벚꽃이 피고 분홍빛으로 흘날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원의 4월은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문화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벚꽃길 아래에서 펼쳐질 음악회와 봄 날따라 함께 하는 공연과 전시, 연극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으면 놓칠 풍경이 많은 봄이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모두가 참여하는 돌잡이, 정담 돌잔치 초대장

문화공간 정담 1주년 기념 기획전 <정담, 첫돌>

오랫동안 자전거 대여소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 정담은
2022년 3월 개관 이후 주민들의 정담고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았다.
꽃봉오리가 노랑고 빨강게 피어오르는 봄, 정담도 첫돌을 맞았다.
1년 동안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던 정담,
이 아담한 공간에서 펼쳐질 돌잔치를 빛내줄 주민 여러분을 초대한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문화재단



발길 드문 자전거 대여소의 변신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주민들의 휴식처라기에는 어두웠던 아담한 공간
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로 변신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정
담공원의 풍경이다. 공원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는 작은 오두막처럼 보이
는 문화공간 정담의 모습도 보인다.

날이 부쩍 따뜻해져서인지 공원을 뛰노는 아이들의 기분 좋은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온 마을이 정담의 돌잔치를 축하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처음 개관했을 때는 여전히 자전거 대여소였다는 인상이 커서 쉽게 들어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두운 목재로 지어진 외관의 이미지도 한 몫 했을
터였다. 내부에 하얀 인테리어로 정비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해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간을 통과해 지나갈 정도로 편안한 곳이 되었다.

돌잔치에 빠질 수 없는

돌잔치가 한창인 정담의 외관에는 빨강고 노랑고 파란 스티커와 포스터가
귀엽고 유틸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돌상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도 레트로하기도, 키치하기도 한 컨셉이었다.

작고 아담한 공간에는 두 개 작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목재와 반투명 유리
로 제작된 병풍과 퍼즐 게임 테이블이었다. 공간 전체에는 외관에 장식
된 것처럼 알록달록 귀여운 스티커들이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주고 있
었다.

병풍에는 1년 동안 정담에서 선보인 전시들이 아카이빙되어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채워졌던 공간의 이야기를 놓친 게 아쉬웠다.

돌상 퍼즐 게임 잔치라는 이름의 게임 테이블은 소목장세미의 시그니처
인 액티비티 퍼니처(Activity Furniture) 시리즈의 새 작품이었다. 보통 미
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축구 게임 테이블에 다양한 돌잡이
물품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전통적인 돌잡이가 정적이라면 소목장세미
가 해석한 돌잡이는 동적이고 재미있었다. 마침 공원에서 뛰놀던 아이들
이 들어와 양쪽에서 손잡이를 당기며 게임을 시작했다.

개막한 날 찾아간 덕분인지 돌떡을 나눠주고 있었다. 축하하러 와서 두둑한
선물을 받아 가는 것이 정말 잔치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담, 첫돌

- 🕒 2023.3.28(화)~5.12(금)
- 📍 문화공간 정담

문화공간 정담, 1년간의 이야기

2022년 3월 31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정담은 지역 청년 예술인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기대하며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첫 전시는 그해 6월 김세운, 신재현, 장준, 최아름, 한기홍 등 5명의 작가들이 함께 <월넛, 그리고 색>이었다.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호두나무를 가지고 다섯 작가들의 개성을 담은 목공 공예를 선보였다.

7월부터 8월 동안은 2022년 시각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진욱의 <한 평의 작업실>을 개최했다. 제목과 전시 컨셉이 잘 어우러졌던 작품으로 정담의 공간 정체성을 강화한 전시였다.



9월에 선보인 <노원마을 ○○미술관 아카이빙전>은 노원구 전역에 있는 공공 조형물과 작품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사 관리한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무심코 지나치던 우리 동네의 설치 작품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녕, 104마을, 안녕>은 노원문화재단의 문화P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을 탐방하고 워크숍 참여자들이 직접 마을의 모습을 그려 낸 작품들을 전시했다.

그 외에도 10월에는 청년예술활성화지원사업인 <예술확성기>, 11월부터 12월 동안은 청년 예술가 네트워킹을 통해 노곤×우크반 프로젝트 전시인 <Blur: 시선으로 밝힘>, 그리고 11월에는 <웃짜(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기획전들을 선보였다.

그동안의 이야기 역시 <정담, 첫돌> 전시에서 엿볼 수 있으니 이 따사로운 봄날 다들 쉬어가는 마음으로 정담에 들러 돌잔치를 즐겨봄이 어떨까.



작은 가구에 오래도록 남을 꿈을 담아

소목장세미 인터뷰



가구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는가? 의자, 테이블, 장롱과 서랍장...
내게 가구란 집 안의 정해진 자리에서 가만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네모난 무엇이였다.
스포츠와 가구를 접목해 선보이는 작가가 있다. 10년 차 목수인 소목장세미는 고정된 가구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뒘뒠 여섯 목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런 그가 '첫 돌'을 기념하는 문화공간 정담의 전시를 맡았다.
돌과 스포츠 그리고 가구가 만난 모습을 궁금해하며 소목장세미에게 물었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소목장세미

노원에서는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띠 독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목수이자 소목장세미라는 1인 공방을 운영해 온 유혜미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화공간 정담에서 진행하는 <정담, 첫돌> 전시의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가볍고 분리나 조립이 쉬운 디자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의뢰를 받아 맞춤 가구로 제작하시나요?

처음에는 그러한 취지도 많았지만, 소목장세미를 운영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는 개인 주문뿐 아니라 전시 디렉팅, 인테리어 작업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에요.

- 작년에는 리움에서 진행한 <아트스펙트럼 2022>에서 거대한 ‘체력 단련 활동장’을 선보이시기도 했지요. 스포츠와 가구를 접목한 시도가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어릴 적 놀이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해요. 또 비슷한 작품이 있는지도요.

목공 일을 하면서 항상 성차별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목공이라는 물리적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자체로 비유하여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뽕틀이라는 운동기구 겸 가구를 만들면서 액티비티 퍼니처(Activity Furniture)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쿠룬타, 평균대 등으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 작업할 때 음악을 많이 들으신다고요, DJ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스포츠와 가구를 접목했듯이 음악과 가구를 접목한 작업도 하시나요?

요즘에는 스피커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스피커를 만들고 그 자체를 디제이 턱으로 사용하는 등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작업할 때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음악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항상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바뀌는데 최근에는 제가 만든 리믹스를 많이 들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곡을 다시 재해석한 곡입니다. 곧 발매될 것 같아요.

- 문화공간 정담은 거의 정사각 구조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작은 가구를 다루는 장소’를 뜻하는 소목장세미의 작은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돌’을 기념하는 정담의 공간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전통적인 첫돌의 행사를 표방하지만, 현대적이고 인터랙티브하게 꾸미고 싶어 전통적인 돌상과 스포츠를 결합한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담에서 소목장세미의 작품을 접하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주시겠어요?

서대문구에 있는 청년예술청이라는 곳에 가시면 상설로 설치된 액티비티 라운지를 보실 수 있어요.



© round2

- 목공 체험으로 의자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목공은 특히 여성에게는 더 낯선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제작 워크숍이나 클래스는 따로 하진 않으시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클래스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작업량도 많고, 디제이로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여의치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 앞으로 소목장세미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일을 10년 정도 해오다 보니 ‘버티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잘 버텨서 오래오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큰 소망이고요. 재미있는 일들로 계속 저의 두뇌를 자극해주고자 하는 것이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

4월 13일(목)과 5월 11일(목) 2회에 걸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여행’과 ‘음악’ 키워드가 만난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을 공연한다.
4월 아프리카로 출발해 5월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로의 음악여행을 시작한다.
여행 가이드가 되어 우리를 안내해줄
스토리텔러 하림을 만나 나눈 그의 여행과 음악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사진·봄아트프로젝트

아티스트 하림에 대하여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봄을 맞이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공연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노원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음악 따라 세계여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새롭게 준비 중인 나혜석 <소녀의 꿈>과 제주현대미술관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미디어아트 컬래버레이션 작품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공연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에서 아프리카와 집시가 활동한 유럽지역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월드뮤직 기획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월드뮤직에 관심이 생기고 공연을 만들던 때에, 공연을 하며 느끼게 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요소 없이 음악만으로 공연을 풀어 들려드린 것으로는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시도한 것이 제가 직접 공연의 해설자로 참여하는 구성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공연을 위하여 제 경험과 상상에 기반한 스토리를 구성하였고 저는 그 이야기 속 여행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오버랜드에서는 아프리카를 아주 잘 아는 여행 가이드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한편, ‘집시의 테이블’은 여행 동행자로 소통합니다. 특히, ‘집시의 테이블’은 20대 후반의 배낭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였기에 그때의 제 감정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공연 속 집시를 따라 여행하는 감정을 공유하고 제가 몸소 느낀 바를 공연으로써 체험하실 수 있길 바라며 기획하였습니다.



공연에 대하여

아프리카 음악이라는 장르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장르라고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음악은 이미 세계적인 뮤지션,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 <라이온킹> OST 또한 아프리카 음악을 충분히 차용한 작품이죠.

저는 장르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보고 흡수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후로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의 아프리카 음악은 지역의 전통 음악이라기보다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 지역이 지닌 음악적 특징과 양식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한 장르입니다.



‘집시의 테이블’은 집시의 발길을 따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여행하신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여행 당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모두 방문한 곳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음악가들을 따라 길거리를 거닐고 그들의 집에서 머물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는 버스킹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일랜드는 버스킹의 천국이어서 모든 분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소소한 수입원이기도 했죠. 소소한 수입을 모아 푸짐한 식사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웃음)

공연에서 진행될 집시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집시의 서사를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먼저 집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집시는 음악을 좋아하고 아주 잘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를 따라 이동을 하면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죠. 아, 그 속에서 집시의 사랑이야기도 펼쳐질 거예요.

종종 관객분들께서 하림을 ‘한국의 집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림의 예술세계에서 하림과 집시는 어떤 관계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의 저는 사랑을 찾아 결혼을 하고 집에서 쉬는 집시(?) 정도가 아닐까요?(웃음) 농담이고요. 집시라는 별칭은 공연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감정에서 파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월드뮤직의 첫 단추가 집시 음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음악은 즉흥성이 강하고 풍부한 감정을 지닙니다. 관객분들이 제 공연을 통해 다채로움을 경험하시는 까닭도 이런 집시 음악의 성격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림의 음악 따라 세계여행 〈아프리카 오버랜드〉

- 🕒 2023.4.13(목) 19:30
-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마무리

이번 월드뮤직 시리즈의 관람 포인트를 말씀해주세요.

이번 공연에서는 저는 가이드입니다. 실제로 여행하듯 편안히 마음을 열고 공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엉덩이는 붙여있지만요.(웃음) 마음만은 여행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좋은 여행이 될 겁니다.

노원문화재단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음악은 우리를 어디론가 떠나게 합니다. 이번 작품에는 여행지의 기억이 담겨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여행의 기억으로 여러분을 여행지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계획 중이신 다음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구상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할머니의 바다>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제 뿌리를 찾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고향인 ‘해남’에서 가서 할머니와 추억을 듣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로 공연을 만들어서 언젠가 땅끝마을 바닷가에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하림 가수, 싱어송라이터

하림은 음악가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로 300여 곡의 음악을 발표하였다. 세계의 다양한 민속 음악에 정통한 하림은 다양한 나라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이색적인 공연을 만들었다. 하림은 2010년 문화기획사 아틀리에오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음악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2018년에는 ‘기타 포 아프리카’ 프로젝트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그 빛을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 프로젝트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미술로 놀며 힐링하기

주다르 공방 대표 조연미 인터뷰



미술학원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이 끝이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집에는 오색찬란한 물감과 크레파스 대신 흑백의 책들만 쌓였다.

성인이 되어서야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활동을 하며 오랜만에 붓을 잡고 종이를 잘라 붙여 봤다.

흑백으로 가득 찬 머리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오면서 미술이 주는 이상한 위안을 느낀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힐링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방이 있다.

프랑스 미술을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쓰고, 다시 돌아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조연미 주다르 공방 대표를 만나 보았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조연미



아띠 독자분들에게 주다르 공방을 소개해주세요.

지금의 저는 주다르 공방은 예술놀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Jeu d'art에서 이름을 따온 공방으로 예술로 놀며 즐기는 공방이에요.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려 보며 힐링할 수 있는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연미 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미술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림은 5살 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비즈니스 아트를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 미술치료랑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미술 학원을 운영했고, 6개월 정도 원자력 병원에 서 미술치료사로도 일했어요. 40대에는 다시 프랑스에 가서 미술치료나 예술경영으로 박사 유학을 다녀오는 게 꿈이에요.



현재 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 수업(펜드로잉, 수채화, 색연필, 아크릴)이 있고, 원데이 클래스로는 원목이나 캔버스에 아크릴화(백드롭 페인팅) 그리기가 있어요. 지금은 공방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수업을 모두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하려고 해요. 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는 생각에 그림 그리거나 예술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입문용으로 어떤 재료가 가장 적합할까요?

보통 유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화보다는 아크릴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잘못 칠했을 때도 다시 덮을 수 있다 보니 부담 없이 그릴 수 있고, 쉽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마음 편한 재료예요. 유화는 기름도 따로 써야 하고 말리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초급자분들께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동안 원데이 클래스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싸우신 건지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커플들은 캔버스 2개를 붙여서 그림이 이어지는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따로 할 거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그림 그리면서 풀리더라고요. 언제 싸웠냐는 듯 작품을 만들고 기분 좋게 팔짱 끼고 가시는 걸 보면서 뿌듯했던 적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저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알고 가시거나,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가게 될 때 참 좋아요.

앞으로 주다르 공방과 연미 님의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프랑스 미술 지도사 자격증을 만들어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그 전에 쌓아놔야 하는 이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쓰고 있는 원고를 3월 안에 마감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예요. 처음에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책을 내고 싶었는데 미술 교육에 필요한 창의성에 대해 쓰고 있어요. 프랑스 미술 문화를 이야기하려다 결국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웃음)



주다르 공방이 노원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궁극적으로 어떤 곳이 되길 바라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예술 활동은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긍정적 에너지를 얻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공감과 소통이 부족한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참고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AI 과학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프랑스식 창의 미술, 그리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또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자연물 재료를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다그닥다그닥! 말의 알을 찾아서

방글라데시 민담으로 만든 가족연극 <용감한 탄티>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용감한 탄티>가 관객들을 만났다. <용감한 탄티>는 방글라데시 민담을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한 가족연극이었다. '칸'은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다. 학교가 말을 타고 갈 만큼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 네 형편으로는 말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다. 칸의 아빠 '탄티'는 말 없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위해 기발한 생각을 한다. 바로 말보다 저렴한 말의 알을 사겠다는 것이다.

글.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김윤지



단체관람 왔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게 만든 극장이다. 계단도 낮고 의자 등받이도 낮다. 매마침 공연 첫날, 어린이집에서 단체 관람을 왔다. 아이들은 짝꿍의 손을 잡고 선생님을 따라 계단을 한칸 한칸 내려갔다. 그리고 차례차례 자리에 앉았다. 의자는 자리마다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알아보기 쉬웠다. 아이들은 다섯 살 정도 돼 보였는데 50분이나 되는 공연을 끝까지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웬걸. 그것은 기우였다. 아이들은 금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

첫 장면은 양상블 배우 둘이 나와 동물 소리를 내고 동물을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탄티와 칸이 사는 곳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 연극의 배경이 되는 곳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은 배우들과 같이 동물 소리를 내고 손으로 흉내도 내면서 무대에 집중했다.

칸은 말을 사주지 못하는 아빠 탄티를 바보라고 부르며 말 없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탄티도 말을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탄티는 어떻게 하면 말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달걀이 닭이 되는 것처럼 말의 알을 사 부화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도대체 말의 알은 어디서 사야 할까? 탄티는 객석에 물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다. "마트요."



가자, 가자, 말의 알을 사러!

탄티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시장이 있는 도시로 갔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말의 알을 사러 왔다는 탄티를 비웃기만 할 뿐 말의 알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각종 알을 파는 장사꾼을 만나고, 그는 탄티를 속여 커다란 알을 판다. 망아지가 태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을 크기다. 탄티는 칸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며 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 밑에서 잠을 자기로 한다. 그러다 호랑이도 만나고, 알을 노리는 늑대도 만난다. 이윽고 알이 깨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나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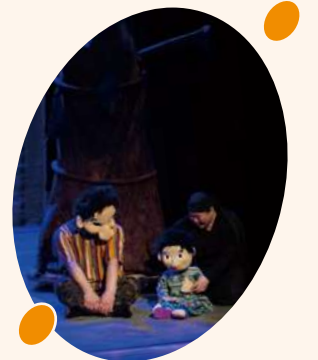
최고의 말은 바로!

알에서 나온 건 커다란 새였다. 결국 탄티는 칸에게 말을 사주지 못했지만, 칸은 이제 말이 없어도 괜찮다. 말보다 더 좋은 아빠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칸은 이제 군소리 없이 학교도 잘 간다. 알에서 나온 새가 귀찮게 자꾸 좇아오기 때문이다. 탄티와 칸은 새에게 쫓기며 학교에 가고, 새는 탄티 부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

이 공연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순박한 아빠의 모험을 아기자기한 오브제를 활용해 재미있고 풍성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말이 흔한 가축이 아닌지라 말을 갖고 싶어 하는 칸의 소망이 신선했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나라나 방글라데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또한, 소중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은 대사 중간중간 반복되는 의성어·의태어 운율이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다그닥다그닥!



가족연극 용감한 탄티

📅 2023.3.9(목)~11(토)
📍 노원어린이극장

점점 크게, 증폭되듯 이뤄진 만남의 변주

생활문화동아리 크레센도: 크레센도와 크레센도로

크레센도는 노원구 청소년 중창단이다. 2022년 9월, 노원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목동천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문화공간 정담에 초봄의 햇살이 들 무렵, 크레센도의 세 단원들을 만났다. '점점 크게'라는 의미를 가진 크레센도의 뜻처럼 앞으로 그들의 활동도 꾸준히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크레센도

반가워요! 자신을 소개해볼까요?

조희원 크레센도에서 리더를 맡은 고등학교 1학년 조희원입니다. 소프라노를 맡고 있고, 크레센도가 결성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나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신근영 중학교 2학년 신근영입니다. 크레센도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어요. 고음을 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 노래를 계속하고 있어요.

김상영 고등학교 1학년 된 김상영입니다. 소프라노를 맡고 있고 가끔 알토도 하고 있어요. 크레센도를 하고 나서 칭찬 덕분에 노래에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크레센도는 어떤 동아리예요?

조희원 크레센도는 청소년 중창 동아리인데요, 2019년도에 창설돼서 지금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음악 용어인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점점 자라나게'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크레센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크레센도에서 중창하는 건 학교에서 중창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나요?

신근영 크레센도로 활동하면서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과 사귀게 되고, 노원구 각 지역에 사는 단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조희원 학교에서는 보통 노래를 축제 때나 수행평가로 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는 타인의 의지로 부르게 되는 건데, 크레센도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하고 싶어서 찾아온 친구들이니까 그 점이 특별한 것 같아요.

작년에 노원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목동천 야외무대에서 공연했어요. 공연해보니까 무엇이 인상 깊었나요?

김상영 저로서는 그때가 첫 공연이었거든요. 정말 떨렸어요. 옆에서 잘 이끌어주는 팀원들이 많이 의지가 되었고, 노래가 다 끝나니 너무 뿌듯했어요.

조희원 저희가 야외 무대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공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자작곡을 처음 발표하는 날이어서 긴장되고 설렘었어요.

목동천 야외무대에서 <내 꿈은 파티시엘>, 빌리 엘리어트 님 <Electricity>, 자작곡 <RUN>을 불렀어요. 공연에서 불렀던 좋아하는 곡을 소개해주세요!

김상영 <RUN>이라는 자작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작곡가와 단원들 사이에 음악적 견해를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Run'의 커버 사진



의상 로고



<RUN>의 주제는 어떻게
고르게 된 거예요? 노래에서
청소년기에 느낄 수 있는 자유
분방함도 있고, 치열한 느낌도
있었어요. 숨이 차게 헉헉
뛰어서까지 꿈을 찾으려고 하는
치열함이에요.

김상영 ‘너무 빠르지 않아도 천
천히 꿈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의견을 말하
다 보니 너무 ‘천천히 가지만 해서
언제 꿈을 찾을까, 이제는 좀 더
빨리 꿈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신근영 그런 이야기 끝에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달리자’라는
주제가 만들어졌어요.

공연 연습을 하면서 중창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나요?

김상영 단원들의 합에
포함되는 개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 톤, 크기들도
다르기 때문에 합이 깨지지
않는 한에 개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성에 따라서 노래가
확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조희원 합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합도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파트를
지켜야 좋은 소리가 나오고 합을
맞춰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성실성과 자신의 위치에
맞게 파트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크레센도에서 노래하던 시절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신근영 나를 성장시키게
해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크레센도’에 들어가면서 노래도
잘하게 되고, 무대도 하다보니
많은 추억이 생겼거든요.

김상영 ‘크레센도’ 활동을 하며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멋진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가장
좋은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조희원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성인 돼서 동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데크레센도’로 만나자는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The Joy of Being Together

함께 있다는 기쁨

05. May



찬란한 봄날일수록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만큼 그림자 진 곳이 더 어둡게 느껴진다. 인생은 혼자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마냥 혼자일 수만은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내 손길을,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동네에 수많은 이웃까지. 가정의 달을 맞았다. 노원은 그동안 착실하게 만들어 온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 멀리 떠날 것 없이 발 닿는 곳에 문화와 예술이 있다. 곁에 있는 손을 잡고 함께 하기 좋은 나날이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긴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함께라는 것

어쿠스틱 R&B 듀오 원셋(1set) 인터뷰

찬란한 봄날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까. 원셋의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노원 즐거운 벚꽃길 콘서트>에서 데뷔 9주년을 하루 앞둔 원셋은 그야말로 봄날의 주인공처럼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전날까지 흐리던 날씨가 완벽히 갼다.

서로와의 만남이 마치 운명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두 여성은 9주년을 지나 앞으로 10년, 20주년을 향해 오래오래 나아갈 생각이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원셋

반갑습니다. 아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원셋을 소개해
주세요.

데뷔 9주년 축하드립니다!
한 팀으로 10년 동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멋지고
대단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R&B 듀오 원셋입니다!
둘이 한 세트라는 의미에서 '원셋(1set)'이라고 지었어요.

후아유 20살 때 대학교에서 예진 언니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학교에서 공연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언니가 같이 무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그게 원셋의 시작이었죠. 그 공연이 동기, 선후배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처음 누군가와 같이 노래한 거였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건대의 한 작은 연습실을 빌려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팀 이름을 짓고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진 그때는 국내에서 유튜브가 지금만큼 대중적인 플랫폼은 아니었는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노래하는 영상들을 올렸고, 반응이 좋았어요. 덕분에 본격적으로 인디 신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회고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후아유 첫 번째로 9년 전 건대의 한 작은 연습실 복도에 앉아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영상을 찍었던 수많은 날이 떠오르네요. 그때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노래하는 걸 1시간 찍으려면 옷느라 3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같이 웃다가 목이 쉬기도 해요.(웃음) 두 번째는 평생 잊지 못할 원셋의 우당탕탕 일본 활동기인데요. 이걸 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패스.

예진 그동안의 일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에 다녀온 강릉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행사 때문에 2박 3일 동안 강릉에 머물면서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거든요.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대게도 먹고, 불꽃놀이도 하고, 또 밤새 웃다가 울기도 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원셋이란 이름을 잠시 잊고 10년 전 우리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제게는 앞으로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보게 될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곡을 쓰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어떤 주제를 많이 다루는지
궁금해요.

예진 저는 사랑을 쓰고, 사랑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대상이 연인이거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대부분의 영감은 실제 경험에서 얻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가사 쓸 때 애를 먹기도 하네요. 한계에 부딪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상 후아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후아유는 제 마음에 속 드는 가사를 써요.

1set Acoustic R&B Duo



결국 모든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셋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받기를
바라시나요?

얼마 전에는 노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노원 즐거운 벚꽃길
콘서트>에서도 공연하셨지요.
노원에서는 어떤 인연으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지난 공연은 어떠셨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셋의 올해 목표와
소망이 있다면요

후아유 저희 노래를 듣고 잠시나마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위로받고,
원셋이라는 팀과 내적으로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근한
동네 언니, 누나, 동생들처럼요. 이제 이모인가...?

예진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처나
도피처가 되는 음악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한결
기분이 나아지면 그걸로 족하다 싶어요.

예진 저는 거의 평생을 노원구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기회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올해 노원구 소재 공연 예술 단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매번 공연마다 멀리 가야 해서 고되었는데 집 앞에서 공연하니 어찌나
편하던지요. 공연은 아주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의 화창한 봄 날씨였어요. 데뷔 9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관객분들께 많은 축하도 받았고요.

후아유 팬분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져 오고 있어요.(웃음) 신곡 언제
들 수 있냐고요. 힘을 내서 활동 계획을 열심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년인데 뭐라도 해야겠죠!
소망이라면 언니와 저의 건강이랄까요. 저희가 건강해야 원셋 10주년,
20주년을 향해 열심히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원셋을 응원해 주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같이 걷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진 올해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단독 공연을 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가니 내년에는 꼭 단독 공연을 하고 싶어요. 데뷔 10주년이기도
하니까요. 올해 목표와 소망은 굉장히 소소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점점 사라지고, 열정도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고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것, 그게 제 소망이에요!



다 같이 즐겨요, 철쭉보다 아름다웠던 사람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불암산 철쭉제 공연산책으로 모이다

보라색과 분홍색,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봄을 알리는 철쭉.
이른 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5일에 한 주 더 앞당겨 시작한 불암산 철쭉제에 방문했다.

공원에는 많은 가족과 나비 날개를 단 귀여운 아이들이 함께였다.

아쉽게도 한파 때문에 철쭉이 활짝 펴지는 못했지만,
공원 한구석에서 이뤄지는 공연 덕에 아쉬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글.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문준영



철쭉제가 개최된 곳은 불암산 힐링타운이었다. 힐링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꿈의 화단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여러 다양한 꽃들과 귀여운 조형물들이 잔뜩 놓인 꿈의 화단에서 잃었던 동심도 찾고 다양한 꽃들의 이름을 맞추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철쭉뿐만 아니라 봄을 맞이하는 다른 여러 꽃을 반기며 철쭉제에 입장했다.



금방이라도 만개할 듯한 철쭉들을 둘러보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힐링 쉼터에 도달하게 된다. 남녀노소 모두가 자리에 앉아 공연 산책이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취재 날에 했던 공연은 버블드래곤의 <편앰버블>, 거꾸로 프로젝트의 <국팝콘서트>, 한빛예술단의 <프로젝트 The Band>였다.

공연 산책의 시작을 알린 버블드래곤의 <편앰버블>은 작고 커다란 비눗방울을 하늘 위로 떠 올렸다. 어쩌면 그냥 비눗방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치 있는 진행자의 입담과 관람객과 함께하는 비눗방울 만들기가 인상 깊었다.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을 내뱉었고,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심에 빠져 비눗방울이 저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가기를 바랐다.

잠간의 준비시간이 지나고는 거꾸로 프로젝트의 <국팝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옛것이라고 생각한 국악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젊은 국악’을 연주하는 공연자들이었다. 이들은 창작국악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조선 판스타 TOP5 4위를 차지하기도 한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다. 여러 어르신은 국악에 맞춰 박수를 치기도 했고 국악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 또한 몸을 덩실거리면서 국악으로 모두가 ‘함께’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흥겨운 국악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 공연예술단인 한빛예술단은 <프로젝트 The Band>라는 이름으로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다. 점차 해가 기울면서 차분해진 음악과 호소력 짙은 노래를 여러 사람이 눈을 감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았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작은 광장에 모여 서로의 행복을 빌고, 또 위로받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불암산 철쭉제에 열린 공연 산책은 단순히 철쭉의 관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마다 다른 나이, 직업,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서로를 응원하고 예술을 즐기는 모습이 노원구에서 점차 피어나는 문화예술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철쭉보다 아름답고 가슴이 벅찼던 공연이었다.



불암산 철쭉 공연산책

- 📅 2023.4.15(토), 16(일)
2023.4.22(토), 23(일)
- 📍 불암산 힐링타운



숨겨진 벚꽃 명소, 노원 육군사관학교에서 보낸 한나절



<노원 즐거운 벚꽃길 콘서트> 리뷰

지난 4월 5일부터 9일, 특별한 장소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다. 그곳은 바로 화랑대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외부인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편하게 둘러볼 기회였다. 게다가 군악대 연주와 노원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공연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니 안 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벚꽃 개화와 첫날에 비까지 내려 과연 벚꽃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행사 마지막 날, 육사로 향했다.

글. 사진. 김윤지(노원아띠 기자단)

육사는 육군본부 직속으로 육군에서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4년제 사관학교다. 전신은 1946년 5월 1일 설립된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다. 육사 졸업자는 학사 학위를 받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커다란 기와지붕의 제2정문을 지나자 넓은 도로가 나왔다. 그리고 높게 솟은 탑이 보였다. 1986년에 건립한 교훈탑으로, 육사를 상징한다는 뜻에서 64m 높이로 세워졌다고 한다. 오각형 기둥 전면에 슬기 '지(智)', 어질 '인(仁)', 날랜 '용(勇)'의 한자가 새겨있다. 이것이 육사의 교훈이라고 한다. 가족 등 방문객이 올 때는 탑 전망대에 올라가 육사 전경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한다.

교훈탑 앞에는 육사의 예복과 정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예복은 각종 의식행사에 착용하는 복장으로, 상의는 태극을 상징하며 하의는 백의민족을 상징한다. 예모 전면에는 모표를 붙이고 모표 위에는 흰색 깃털을 꽂게 되어 있다. 정복은 각종 의식 및 행사, 외출, 외박, 휴가 때 착용하는 짙은 회색의 깔끔한 복장이었다. 아무래도 화려한 예복을 입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교훈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잠깐이나마 슬기롭고 어질고 날랜 육군의 정신을 받는 듯했다.

맞은 편에는 콘서트가 열리는 범무천과 야외무기 전시장이 있었다. 야외무기 전시장에는 조선시대 삼군부청헌당과 연령군 이원 신도비 등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포, 전차, 항공기와 지대공 유도탄 등 전쟁기념관에서 불법한 다양한 무기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콘서트 장소인 범무천 앞에는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나는 벚꽃길을 먼저 가보기로 했다. 벚꽃길은 화랑연병장과 육군박물관을 지나 육사 내의 절인 '호국사'로 가는 길이었다. 2차선 도로 양쪽에 늘어선 커다란 벚나무가 촘촘했는데, 아쉽게도 벚꽃은 지나간 뒤였다. 그래도 막 옴트는 연둣빛 잎사귀와 따스한 햇볕과 쾌청한 공기가 기분을 들뜰게 했다.

기대했던 탐스러운 꽃송이의 벚꽃길 대신 관람객들은 노원문화재단에서 준비한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음악과 함께하는 봄 꽃놀이

메인 행사인 콘서트를 즐길 차례였다. 사회는 남성 그룹 아스트로(ASTRO)에서 MJ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김명준 상병이 맡았다.

범무천은 연못과 분수대로 구성된 휴식 공간으로 1962년에 만들어졌다. 두 마리의 사자가 힘찬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는데, 이는 화랑의 기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콘서트의 전반부는 군악대가 연주했다. 트럼펫, 앙상블, 드럼 라인, 색소폰 앙상블. 특히 드럼 연주가 인상 깊었다. 학교에서 큰북과 작은북으로 배웠던 베이스 드럼(Bass drum)과 스네어 드럼(Snare drum),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드럼으로 구성된 톰톰(Tom-tom)을 연주하는 절도 있는 군인들의 몸짓과 정확하고 강렬한 무율타악기 리듬이 절묘하게 어울렸다.

후반부는 관내 예술인 공연이었다. 노원문화재단은 작년부터 공모를 통해 노원 즐거운 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총 10팀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했는데, 내가 본 마지막 날 오전은 청춘살롱의 무대였다. 청춘살롱은 두 명의 여성 보컬과 기타, 카혼, 피아노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다. 5월에 발매될 신곡 중 <클로저>와 <헤이 댄스> 두 곡을 선보였는데, 모두 밝고 경쾌했다. <클로저>는 주저하지 말고 다가와 마음을 열라는 내용으로 '컴컴 클로저 컴컴 클로저'라는 후렴구가 따라 부르기 좋았다.



<헤이 댄스>는 같이 춤추며 놀자는 내용으로 봄날 야외 공연에 잘 어울렸다. 그리고 에일리의 <헤븐>,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연음의 <Today's Weather is>를 부르며 청중의 마음을 살랑거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준 상병이 군악대 빅밴드와 함께 자작곡 <우리의 봄날>을 포함한 가요 세 곡을 불렀다. 그는 7년 차 가수로서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공연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했다. 1시간의 콘서트는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봄날은 짧다. 꽃은 더 짧다.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 같다. 색다른 곳에서 즐겁게 보냈으니 말이다.

노원 즐거운
벚꽃길 콘서트

🕒 2023.4.5(수)~9(일)
10:00~11:00
14:00~15:00

📍 육군사관학교
범무천(분수대) 앞

..아띠가 대신 다녀올게..

아이도 어른도 기차를 타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곳 화랑대철도공원 '노원기차마을', '타임뮤지엄'

화랑대철도공원엔 기차 주제로 아이들과 주말 나들이를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스위스 마을을 재현한 노원기차마을 1관과 '시간'을 주제로 운영되는 타임뮤지엄이다. 거대한 기차를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노원아띠가 이 두 곳을 다녀왔다.

글. 손혜리(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손혜리



노원구 안의 작은 스위스, 노원기차마을

‘노원기차마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기차의 구조나 부속품 혹은 기차의 역사를 알려주는 주제로 만들어진 전시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원기차마을은 거대한 하나의 마을이었고, 그 안에는 정말 작은 마을 주민들이 스위스의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배치되어 있는 디오라마 버튼을 누르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움직이고, 철도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거나 국기 게양대에 행진곡과 만국기가 게양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노원기차마을

- 📍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2
(철도공원 내 서울여자대학교 맞은편)
- 🌐 https://www.nowon.kr/www/info/info1/info1_06/info1_06_12.jsp
- ☎ 02 723 7793
- 🕒 10:00~19:00(18:0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시간을 이야기하는 박물관, 타임뮤지엄

노원기차마을에서 5분을 걸어가면 시간을 소재로 한 타임뮤지엄이 나온다. 무궁화호 기차 내부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시간의 탄생부터 아인슈타인의 시간, 예술로 승화시킨 중세의 시간, 현대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시간 등 시간을 주제로 한 재미있고 독특한 이야기를 전시한다.

터치 한 번이면 전세계의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오늘날,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생경함을 불러 일으켰다. 최초의 시계인 해시계,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향시계, 진자시계, 세슘원자시계 등 영상과 쉬운 설명으로 각종 시계를 볼 수 있다.



타임뮤지엄

- 📍 서울 노원구 공릉동 29-4 일대
- 🌐 https://www.nowon.kr/www/info/info1/info1_06/info1_06_09.jsp
- ☎ 02 501 8210
- 🕒 10:00~19:00(18:0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으로 들어온 마들장

마을에서 만나는 나들이 장터

4월 22일 청명한 봄별 아래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장터가 섰다. 전국의 농수산물과 정성 어린 수공예품,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챙겨나온 벼룩시장과 함께 생활문화동아리의 공연까지 맛과 멋과 흥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 사진. 이현주(노원문화PD 1기)



노원에코센터와 함께하는
지구의 날
with 생태나눔장터 마들장

4월22일(토) 11시~16시
노원에코센터 (노원구 역북로 460)

“지구의 날 환경장터”

특별부스 생영도 밭도 눈이 온 산물 법씨키트 만들기, 친환경채소와 누룽지 카나페 만들기, 논생물 관찰 부스, 토종모종과 씨앗나눔 부스, 지구를 살리는 환경도서 전시 및 커피 용드리퍼(재사용) 만들기 체험, 자원순환 OX퀴즈

친환경 농산물, 직접만든 수공예 작품, 건강한 먹거리 부스

지구의 날 기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어린이 놀이마당

공 연 노원문화재단의 정현 음악회 무지개 오카리나&밴드, 큰그림, 후르러오, 수확통기타, 요콜누나 등

이벤트 **나와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함께해요!**

1 일회용품 없는 환경장터
시상하지 않는 장바구니, 종이수첩을 가져가서 쓰는 장바구니, 텀러, 물기 사용하는 탄소중립 구민들에게는 모종함기 제공부품도 드립니다.

2 5개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동후 이벤트를 마을장터와 함께 주시길!

3 탄소제로하우스와 비밀을 찾아라
노원에코센터 공간에 있는 제품들까지 참여하는 모든 분께 공짜 선물을 드립니다.

주 관 노원에코센터, 노원도시농업협의회, (사)지구친구들
협력하는기관 노원민소, 마들상인들아, 노원문화재단, 중앙친환경센터, 노원구가족센터, 북부환경정의중점천사마을, 노원시니어클럽, 녹색당사학자협동조합,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 원 노원구

문 의 02-3392-4911

마들은 현재 상계동 일대 지명으로 경기 북부 곡창지대였던 마들평야에서 유래했다. 말을 놓아 기르던 곳이었다는 설과 일대가 삼밭이어서 마들[麻-]이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는 지명이다. 2014년 마들지역을 중심으로 노원구 내 ‘지구의 친구들’과 ‘노원도시농업협의회’ 그리고 ‘노원에코센터’가 의기투합해서 마들장이 시작되었다. 마들장은 마들지역에서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을에서 만나는 나들이 장터’라는 뜻으로 도시농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들이 장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주민들과 신명나는 장터 축제를 나누고자 시작되어 벌써 9년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마들장은 특별히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개최된 의미를 더해 ‘나와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챌린지’를 실천하며 시작되었다. 지구의 날 환경장터 특별부스에서는 생영도 밭도 눈이 준 선물임을 알려주는 법씨키트 만들기와 친환경 채소로 누룽지 카나페 만들기, 논생물 관찰 부스, 토종모종과 씨앗나눔 부스, 지구를 살리는 환경도서 전시, 커피 용드리퍼(재사용)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 자원순환 OX퀴즈 부스에서는 다양한 퀴즈를 통해 환경장터의 의미를 새기고 탄소중립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친환경 농산물도 눈길을 끌었다. 마들장 김의동 운영위원은 “마들장은 저렴한 가격의 대량생산 농산물이 아닌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판매하는 장터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축제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들장의 의미를 전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친환경 농산물도 눈길을 끌었다. 마들장 김의동 운영위원은 “마들장은 저렴한 가격의 대량생산 농산물이 아닌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판매하는 장터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축제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들장의 의미를 전했다.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친환경 장터인 만큼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맛있게 먹고 음식을 먹은 빈 그릇은 판매처에 반납했다. 이런 장터가 열리면 무엇보다 많이 생기는 것이 플라스틱 음식 용기인데 작은 것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마들장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노원구 수공예 장인들이 한뼘한뼘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을 볼 수 있는 장터도 늘 함께했다. 마을 곳곳의 의미를 제품에 담은 수공예품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다시 수공 제품으로 탄생하는 마을 이야기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들장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이 함께 즐기는 장터다.
어린이버룩시장은 노원맘스에서
모집하여 진행했는데, 마들장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재미다. 연필
한 자루부터 작아진 아이들의
웃가지들, 애착 인형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을 아이들이
판매자가 되어 판매한다.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흥정도
하는 이 작은 체험이 미래의
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1시부터 시작된 마들장에 햇살이 뜨거워질 때쯤 장터라면 빠질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바로 노원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생활문화동아리
버스킹’이다. 노원문화재단과 노원예코센터는 올 한해 마들장에서
생활문화동아리 공연을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무대에 선 팀은
수트리오, 무지개 오카리나&팬플룻, 큰그림, 수락통기타, 여섯줄의 행복
총 다섯팀이었다. 다섯 팀 모두 따사로운 봄날 마들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노래를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손뼉을 치고, 호응하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큰그림은 지구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마들장의 컨셉에 맞게
‘지구’와 ‘환경’과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 큰 호응을 받았다. 수세미로
만든 머리장식을 쓰고 등장한 큰그림은 고래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고래야 미안해’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노래로 풀어낸
‘환경실천송’ 등을 선보였다.

노원예코센터 앞마당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2023 마들장은 앞으로
총 3회(6월 24일, 7월 29일, 10월 21일) 더 펼쳐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가 되고, 관계 속의 이야기가 새로운 마들장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노원구만의 나들이 장터 마들장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발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마들장

- 🕒 2023.4.22(토),
6.24(토), 7.29(토),
10.21(토)
- 📍 노원예코센터 앞마당
(서울 노원구 덕릉로460
마들근린공원 내)

Feeling like Flying in the Sky

하늘 위를 나는 기분으로

06. June



한 해의 절반, 뜨거운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서 이글이글 내리쬐는 6월이 왔다. 무더운 여름과 함께
노원아띠도 3살 생일을 맞이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올해 펼쳐진 문화예술 행사들과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화려한 축제들과 함께라서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성큼 여름에 들어선다.
자신의 생일이든, 가족과 친구, 연인의 생일이든 특별하긴 매한가지.
노원아띠 3주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독자들의 기고와 함께하는 터라 더욱 특별하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숫자로 보는 노원아띠 3년의 기록

노원문화재단 웹진 노원아띠 발행 3주년 맞이

누구보다 빠르고 풍부하게 우리 동네 문화예술 소식을 전달하는 노원문화재단의 웹진 노원아띠.

순우리말로 친구를 뜻하는 ‘아띠’라는 이름 만큼이나 구민들 곁에서 그리고

구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알록달록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전한지도 어느덧 3년.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숫자로 만나보고 그동안 함께 한 이들을 추억해보고자 한다.

글. 사진. 전은진(노원아띠 PM)

Anniversary

인터뷰 중인 아띠 기자의 모습



1,700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노원아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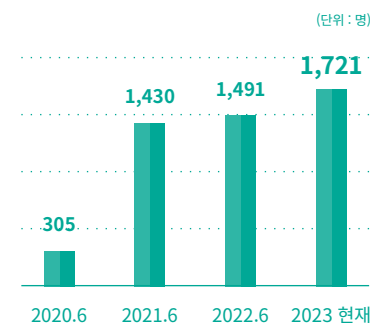
노원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노원 안에서 문화예술의 싹이 트기 시작한 지 1년이 된 2020년, 재단에서는 구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도 커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준비할 풍부한 문화행사 소식과 구민이 직접 기자가 되어 공연과 전시, 축제에 참여하고 느낀 점을 전달하면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웹진 노원아띠다.

2020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3년 6월인 현재까지 총 31편의 편지가 두둑한 봉투에 담겨 구독자들의 메일함에 닿았다. 웹진이라는 형태였지만, 그래서 더 알찬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그 노력을 알아본 듯 3년 동안 노원아띠의 구독자도 차곡차곡 늘어갔다. 처음부터 진가를 알아본 305명의 구독자와 함께 3년이 지난 현재는 총 1,721명의 구독자가 노원아띠와 함께 해주고 있다.

웹진 노원아띠 구독자수 추이 (2020.6~2023.5)



16명의 아띠 기자단 그리고 26명의 지역예술인과 함께

노원아띠는 창간년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시민 기자단과 함께 하고 있다. ‘아띠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노원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그 풍경을 글로 담아냈다.

2020년부터 2023년인 현재까지 총 16명의 아띠 기자단이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기사는 놓치기 아까운 문화행사에 초청하는 초대장 같기도, 몰랐던 공간을 소개하는 보물지도 같기도 했다. 기자단 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매년 권역별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PD들도 노원아띠에 재밌고 알찬 이야기를 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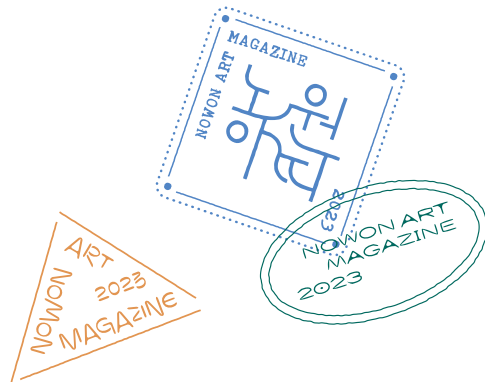
노원아띠는 또한 부지런히 지역 예술인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다. 2021년 9월부터 새로운 기획 기사인 ‘지역 예술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6명(팀) 이상의 지역 예술인을 만나 그들의 작품 세계와 작업 방식에 대해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개인의 예술인뿐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생활 문화 동아리와 새롭게 발굴한 신진작가들 그리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람책으로 등록된 전문가들을 만나 재미있고도 유쾌한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했다.

숨가쁠 정도로 알차게 달려온 노원아띠, 뿌듯한 3년의 성장 과정만큼이나 더욱 실속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노원의 문화소식이 궁금할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원아띠 발행 3주년 기념 독자 기고 이벤트

우리의 생일을 기억해



강다니 <생일 선물>

사계절이 아직 분명하던 시절의 얘기다. 이따금 황사가 온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봄날 공기 중에는 먼지 대신 기분 좋은 나른함이 떠다녔다. 가을에는 고개를 들면 애국가의 그 공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 미화됐다고 할지라도 미세먼지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의 날씨는 그때와 닮은 구석이 없다.

봄가을은 침포처럼 아슬아슬하다. 그 사이 여름과 겨울은 점차 길이를 늘어뜨려 거의 맞닿을 것 같다. 두 개의 계절이 번갈아 일상을 덧칠한다. 여름은 폭염과 장마로, 겨울은 미세먼지와 건조함으로. 어느 쪽이든 흐리기는 매한가지라 점점 과거의 일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1996년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다. 요즘 11월은 춥기만 하고 진눈깨비나 조금 흩날리고 말지만, 30여 년 전 서쪽 바다 근처 어느 소도시에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졌다. 오전부터 흐릿하던 하늘에서 쌀가루 같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발목이 푹푹 빠졌다.

나는 반가운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을 바라봤다. 생일파티 날이었다. 색종이를 열심히 접어 만든 초대장을 친구들에게 돌리며 푹 오라고 당부했다.

엄마는 아침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피자과 잡채 같은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생일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텅 빈 상에 하나둘 채워지는 음식을 보며 걱정하자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가 있는데 뭘 걱정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에 조금 더 시무룩해졌다.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면 내 생일파티는 그저 동네 사랑방 모임으로 바뀌고 마는 거다. 바로 그게 걱정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현관 앞을 떠나지 못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친구들이 못 오나 보다.'

엄마의 말처럼 눈은 점점 더 심해져 거의 밖의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벌컥 문을 열자 찬공기와 함께 머리카락이 푹 젖은 채로 불이 빨강게 달아오른 친구 두 명이 눈을 털며 들어왔다.

'밖에 눈 엄청 와!'

인사보다 날씨 얘기가 먼저였다. 그렇게 하나, 둘 모인 아이들이 족히 30명은 되었다. 좁은 거실에 아이들이 식탁 주위에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앉았다.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선물 증정식도 마치고 배까지 두둑이 채운 어린이들의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집안에 없었다.

아이들은 팝콘을 튀기듯 하나둘 집 밖으로 튀어나갔다. 집 앞에서 눈싸움이 시작됐다. 그런 날씨에 밖에 나와 있는 건 우리뿐이었다. 이내 그곳도 비좁았는지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며

'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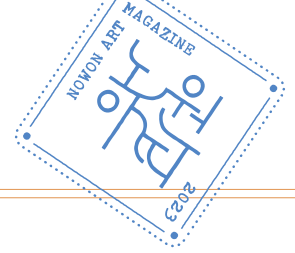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눈 때문에 앞선 친구의 등도 잘 보이지 않는데, 심지어 안경 위로 눈이 달라붙어 친구들을 쫓아가는 건 포기해야 했다.

안경을 벗고 흐린 눈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골목은 사위가 조용했고 집안에선 우려하던 사랑방 모임이 시작됐다. 생각처럼 싫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참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 나는 보송한 얼굴로 뒤늦게 돌아온 친구들의 물골을 놀려댔지만, 친구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눈사람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느라 바빴다.

늑둑해진 옷에 덩달아 습해진 집안의 공기와 빨강게 익은 손만큼이나 상기된 아이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기억에 생생하다. 그땐 몰랐다. 친구들의 행복한 얼굴이 평생 잊히지 않을 선물이 되리란 걸.

눈이 내리지 않는 11월에도 나는 여전히 그날 내린 눈을 본다. 그 눈을 그 친구들도 보고 있을까. 생일 즈음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



김경진 <나의 생일>

엄마의 몸은 내 생일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상하게도 내 생일날만 되면 엄마는 귀신같이 몸이 아팠다. 얼마나 심하게 몸살을 앓았던지,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나를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결과였다.

장손인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 엄마는 한동안 대 이를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다. 특히 첫 손(孫)으로 딸을 낳은 후론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 속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운명은 참 알곶었다. 가까스로 두 번째 임신에 성공했지만, 나까지 딸로 태어나면서 엄마의 고된 시집살이는 더 깊어졌다. 할머니는 갓 태어난 나를 윗목에 던져버리고는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남들은 척척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고...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아예 우리 집안 태를 끊기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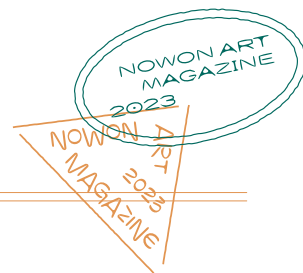
잇달아 딸을 낳은 엄마에게는 미역국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산후조리는커녕 시부모 눈총에 못 이겨 나를 낳은 다음날 바로 발일을 나가야 했다. 엄마는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들쳐 업고 딸기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 집안에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였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조차도 둘째 딸인 나에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일하는 엄마의 등 뒤 포대기 속에서 나는 누에고치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아마 나는 엄마의 등 뒤에서 전해오는 포근한 온기를 느끼면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달콤한 꿈을 꾸었을 것이다. 나를 업고도 엄마는 딸기농사를 척척해냈다. 갓난쟁이를 업고 일해야 하는 고단함도, 행여 소박을 맞지는 않을까 숨죽여 지낸 삶의 지난함도 모두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뿐이었다.

젊은 시절 모진 시집살이를 겪으며 몸을 혹사당한 탓인지, 엄마는 나이 오십을 넘어서자 급격히 몸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특히 내 생일날만 되면 독감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몇 날 며칠을 심하게 앓곤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생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싫었다. 내 생일만 되면 기가 막히게 아파오는 엄마의 몸이며, 엄마를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축하 한마디 해주지 않는 쓸쓸한 날이었기에 생일이 유독 싫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쯤 엄마의 몸은 이곳저곳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심장에까지 이상이 생겨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서를 써놓고 수술실에 들어간 엄마는 이틀에 걸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받고서야 간신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몸이 회복되고 나자 이번엔 신장에 이상신호가 나타났다. 요독 수치가 너무 높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투석을 시작했다. 팔에 도관을 삽입하면서 엄마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가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다. 당장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

"딱 1년만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자."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지금은 내 남편이 된 남자친구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며 극구 내려오지 말라고 말리는 엄마도 간신히 설득했다.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병마(病魔)와 씨름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몸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아팠다.

투석실에는 늘 푸석푸석하고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진 만성심부전환자들이 가득했다. 네 시간 가까이 투석실에서 몸 속 노폐물들과 실량을 하고 나온 엄마에게선 생기라곤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투석만 시작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어쩐 일인지 엄마의 몸 상태는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렸다.

엄마는 투석 받은 지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갔다. 며칠 전까지 투석실에서 멀쩡히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엄마는 투석을 받는 내내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음이 가져오는 본능적인 공포 앞에 엄마는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못했다. 내 서른여덟 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엄마는 간다는 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다. 엄마가 살아있음을 알리던 심장박동기의 작은 물결이 멈추고, 의사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엄마의 온기를 붙잡고 싶었지만, 삶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엄마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던 엄마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엄마의 따스한 품을 느낄 수도 없다.

지금도 내 생일이 다가오면 그 옛날 엄마의 등에 업혀 들었던 콧노래가 생각나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한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다음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요!
그땐 내가 오래오래 사랑해줄게요."**

이미령 <남다른 생일>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우리는 중학생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물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너와 나는 항상 집에 일찍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높은 계단에 앉아 아무말 대잔치를 하면서, 두 다리를 허공에 띄우고 수영하듯이 휘젓곤 했다.

모든 수업이 끝났지만 방과 후에도 운동장을 돌고 있는 가엸은 육상부 친구들이 보였다. 그들의 머리 위로 솟은 맞은편 건물은 우리가 졸업할 고등학교 건물이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너는 문득 떠올랐다는 듯이 자기에게는 생일이 없다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2월 28일 아냐?”

“응, 아니야.”

너는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자신의 팔 다리를 힘찬 동작으로 흔들어보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너는 너의 남편이 우리더러 왜 20년째 너희가 절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또 하하하, 웃었다. 너는 활달했고, 나는 조용했다.

너는 비밀을 잘 털어놓았고, 나는 그게 좋았다. 20년 후에도 그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또 2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친구를 먹고 있으리란 걸, 그때의 우리에게 설명해줄 방법은 없다.

“너 윤일이라고 아니?”
“모르지. 윤일이가 대체 누군데?”

“푸하하하.”

너는 아주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너에게 또 남친이 생긴 걸까? 그때 나는 누군갈 사귀어본 적이 없었지만 너는 여중과 여고를 다녔음에도 벌써 세 명과 헤어진 후였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남자애들 중에 윤일이는 없었다.

“어디서 만났는데?”
“아니야, 말하지 마. 부러워 죽겠네.”

“야, 진짜 미치겠다.
웃는데 말 시키지마. 광대 아파.”

한참 웃던 너는 설명했다. 음력 12달에 윤달이 끼어들어 13월이 되는 것처럼 자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음력 2월 28일 뒤에 끼어드는 2월 29일에 태어났다고 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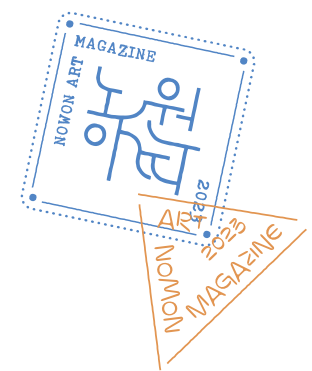
나중에는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검색 결과를 들여다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가 또 뭘 했더라? 늘 그랬듯 너의 집에 가서 자매처럼 저녁을 먹고, 퇴근하신 너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푸른 버스를 타고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나의 시골집으로 되돌아갔던가? 반복되던 그 사소한 일들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아직도 실감한다.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너의 생일을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음을. 4년치 선물 한 번에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게? 하하하. 너는 그렇게 웃곤 한다.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기념일들처럼 생일이란 것도 어릴 때면 항상 설레는 이벤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의미가 퇴색하곤 한다. 그러나 너의 생일은 그렇지 않았다. 너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축하해줄 생일이 몇 번이나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다. 20년 후에도 우리 가 계속 친구를 먹고 있을지 누가 설명해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거나 말거나,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멀리 떨어져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우리, 생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네가 늘 잘 지내기를 바란다. 물론 너도 같은 소원을 빌 거라는 걸, 안다.



노원에서 제주까지 훨훨 날아다니는 신진작가 4인을 만나다

노원문화재단 2023 시각예술 신진작가 4인 인터뷰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문예회관에서는 2023 노원문화재단 시각예술 신진작가 제주 교류전 <TAKE A LOOK>이 개최되었다. 노원에서 선정된 지역 예술작가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이 새로운 교류와 협력은 노원문화재단에게도, 막 창작 열기를 불태우고 있는 신진작가들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도전이었다. 지금 막 제주도에서 돌아온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김도하, 유수민, 조연미, 최서현

**반갑습니다. 노원아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도하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김도하입니다.

유수민 유수민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노원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현 작가 최서현입니다.

조연미 지난번에 주다르 공방으로 인사드린 조연미입니다. 이렇게 또 아띠를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올해 노원문화재단의 2023 시각예술
신진작가로 선정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노원구와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김도하 대학교에 진학한 2016년부터 쪽 살고 있으니 노원구와의 인연도 벌써 8년 차가 되었네요.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노원문화재단에서 좋은 기회로 전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수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에 입학하면서 노원구에 연을 두게 되었어요.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LOLOLO ART FAIR> 등에 참여했구요. 졸업 후 작업실을 태릉입구역 쪽으로 구했어요. 공원도 많고 중랑천도 가까이 있어서 작업하다가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최서현 제주에서 태어나 19살까지 쪽 지내다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노원구에서 쪽 살게 되었어요.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근처에 작업실을 마련해두었고요. 경춘선 숲길이 산책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여기서 지낼 것 같아요.



올해 지원을 통해 개최되는 전시는 언제, 어떤 주제로 진행될 예정일까요?

유수민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TAKE A LOOK>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김도하, 조연미, 최서현 작가와 함께 ‘보는’ 행위와 ‘모방’, 그리고 ‘창조’에 관한 주제로 전시를 꾸렸습니다. “Take a Look”의 다른 의미는 인터넷 밈인 “떼결룩”으로, 고양이를 뜻합니다. “떼결룩”과 같은 밈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것은 이 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의 각양각색의 “떼결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노원문화재단에서 전시도 예정되어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선 4명의 작가가 서로의 작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신작으로 전시를 꾸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현 지금과는 큰 변화 없이 익숙하게 생각해진 사회적 통념이 당연하게 여기는 위치에서 벗어난 순간, 낯설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닌 감각을 최백설의 시선으로 그려낼 것입니다.

김도하 함께하는 작가들 모두 저마다 색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예술을 어렵지 않게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뜻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12월에 노원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더 재밌는 주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연미 12월 노원의 전시에서는 새 작품 위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간단히 <토이스토리>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의 아들에 대한 엄마의 소심한 복수로 시작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월 전시에 오셔서 엄마의 복수극을 관람해보세요.(웃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소망도 들려주세요.

김도하 올해 9월에 졸업 개인전을 앞두고 있어요. 잘 준비해서 첫 개인전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보통 도자기하면 박물관에서 보는 백자나 청자 항아리를 떠올리시더라고요. 도자 매체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만들어져있다고 생각해요. 도자 매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매력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수민 지금 제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술에 관한 상이한 사유 체제들 사이의 구별이에요. 현전과 부재,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보여줌과 의미작용의 관계와 그 구별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해요. 두 번째는 상이한 유형의 이미지에 관한 관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논리의 뒤얽힘은 재현과의 거리 조정을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바뀌버립니다. 제 작업의 목표는 이 뒤얽힘을 이해하고 이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서현 당연한 말이지만, 전시 기회를 잡기 위해 꾸준히 작업을 해야죠. 결국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지금은 세상에 내 작업을 보여주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제 작업을 알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고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동력이 되니까요.

조연미 6월과 7월에는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연물 소재의 미술활동’ 클래스를 준비 중이에요.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작업을 거의 시리즈로 하는 편인데 내년에는 올해 준비한 토이스리즈를 확장할지, 또 다른 시리즈를 구상해볼지 고민 중이에요. 구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틈틈이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노원구의 원더랜드, 달콤한 상상에 초대합니다

달콤한 상상과 꿈이 실현되는 즐거운 우리집 <달콤한 상상>

여름을 앞둔 5월, 경춘선 숲길에서는 또링, 엄지, 프롬일랑 작가의 <달콤한 상상>이 열렸다. 작가들은 제각각 음식, 가족, 동물 등을 재해석한 위트 있는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한다. 시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일러스트 그림과 거대한 종지로 만든 설치작품... 홈파티를 연상하게 하는 즐거운 공간에서 전시 <달콤한 상상>을 만나보았다.

글. 사진. 손혜리(노원아띠 기자단)



또링 작가의 작품 속으로 ✕

철도를 따라 경춘선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크래커와 도넛, 컵케익으로 장식된 전시 홍보물이 반긴다. “바게트를 들고 포즈를 취해보세요!”라는 멘트와 배경, 그리고 바게트가 함께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포즈는 빵을 만드는 포즈가 아니다. 바로 야구선수의 포즈다. 바게트를 보면 야구방망이가 생각난다는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바게트 장난감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것도 작품 속으로 걸어가는 느낌을 한몫 챙겨주었다.

또링 작가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위트 있게 표현한다. 달콤한 컵케이크 위의 흘러넘치는 생크림은 눈사태를, 조각난 크래커는 북극의 빙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아이들이 환경을 달콤하게 접할 수 있는 이 전시에는 포토존도 마련되어있는데, 아이들은 북극곰 의자에 앉아 빙하를 연상하게 하는 크래커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는 이상한 것들에서 시작된다 ✕

엄지 작가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작품 속 사물들의 모습이 이상하지만 자연스럽고, 아이러니하지만 독특해 보인다. 사과는 당구공으로, 도넛은 카메라 앵글로, 파인애플은 마이크로 표현되는 작가의 새로운 생각과 즐거운 상상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발상을 떠오르게 한다.



환상이 넘치는 곳으로, 프롬일랑 ✕

다양한 색과 재료로 만들어낸 거대한 꽃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꽃이 가득한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도옥영, 이해라, 정유진, 진혜란, 전송이, 오나래, 이하나, 강수정 작가로 구성된 예술가 그룹 프롬일랑은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작업을 한다. 그래서인지 프롬일랑의 작품들을 만나면 따뜻한 환상의 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달콤한 엽서 만들기 ✕

전시장 가운데에 다양한 마스킹테이프와 색연필, 색칠도구가 가득하다. 엽서를 만들 수 있는 종지도 배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전시를 보며 상상했던 것들을 엽서에 그리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엽서를 만들어 벽 한편에 부착한다. ‘나도 엄지 작가’라는 섹션에서는 지나간 관람객의 엽서들을 볼 수 있었는데, 바나나가 보트가 되고, 아보카도가 사람의 코가 되는 표현 등 흥미로운 이미지가 많았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잘 즐겼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분 좋고 달콤한 전시 <달콤한 상상>은 노원문화재단과 스튜디오 제재의 주최, 주관으로 지난 5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경춘선숲길 갤러리의 다음 전시는 노원구의 시각예술 관련 협회들이 꾸민다. 뜨거운 여름날 잠시 머리를 식힐 전시가 필요하다면, 경춘선숲길 갤러리를 방문해보시길 추천한다.

달콤한 상상

- 🕒 2023.5.3(수)~28(일)
- 📍 경춘선숲길 갤러리



마을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여섯줄의 행복'

오랫동안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제2의 삶, '여섯 줄의 행복'으로 시작된다

노원평생교육원에는 오늘도 흥겨운 기타 소리가 새어 나온다.
 실버 동아리, '여섯 줄의 행복'의 연주 소리다.
 음악은 언제나 국적, 성별, 그리고 나이를 무관하게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음악을 무려 10년 동안 연주해 온 모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섯 줄의 행복'을 만나 음악이란 어떤 존재인지,
 10년간 이어올 수 있던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글. 사진.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웹진 구독자분들께 '여섯 줄의 행복'이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섯 줄'은 기타를 상징해요. 기타를 연주하면서
 행복을 갖고자 시작한 모임이기 때문에 여섯 줄의
 행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타를 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노원평생학습관의 기타 강습 초급반
 회원들이었어요. 그때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 달 같이 배우다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한 게
 동아리의 시작이에요.

무려 10년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저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행복을 찾는, 그런
 소소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리를
 얻거나 얼굴을 나타내거나 하는 욕심이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길게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항상 기쁨을 느끼지만,
 한순간을 뽑자면 봉사활동에 나갔을 때 같아요.
 2015년도에 태릉에 있는 다운중후군 복지관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 마련해서
 다운중후군 환자분들을 만나고, 2시간 동안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같이 즐겁게 보낸 시간이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으셨나요?

시립 중계요양원에서든 연인이 닿아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퍼지기 전까지 매달 생일인 요양원
 분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해드리곤 했어. 지금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더 안전해진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생각이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나, 꼭 연주하는 대표곡이 있을까요?

노래는 거의 팝송 위주로 연습해요. 그래서 딱히
 한 곡을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팝송 말고도
 동요도 연습하곤 해요. 오랫동안 계속 활동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악보 책자를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편집을 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고 꼭
 연습해오다가, 연주할 일이 생기면 조금씩 순서를
 바꿔가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줄의 행복’만의 매력이나 동아리 자랑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두가 매력을 느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은퇴자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제2의 인생을 즐긴다고 할까. 그런 생각 덕분에 매번 즐거워요.

노원구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앞으로 노원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 모두가 노원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학습관을 중심으로 축제도 열어 주시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좋고 지원 체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재단에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게 기대 이상으로 도움을 많이 줘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여력이 있는 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동안 지금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용기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코로나 이후로 행사나 거리공연 같은 곳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공연할 기회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연주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라, 공간도 개선이 되고 기회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앞으로 ‘여섯 줄의 행복’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목표가 있을까요?

우선 봉사활동에 많이 나가서 저희 공연이 많은 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임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젊게, 그리고 열심히, 새롭게 연장된 삶을 누리고 싶어요.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음악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1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던 건 당연히 음악이었을 테니까. 인터뷰가 끝나고 짧게 연주를 볼 수 있었다.

동아리 분들의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서려져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그런 행복이, 그리고 음악이 아주 오랫동안 가기를 바랐다. 🌿



Fantastic Summer Bookcation

07. July

책과 함께 환상적인 여름 휴가



7월에는 내내 비가 온다는 뉴스를 보았다.

작년 축축한 회색빛의 여름을 생각하니 덜컥 우울함부터 밀려온다. 장마가 오고 열대야가 지나면 여름도 끝이겠지만, 그전에 우선 이 무더운 나날을 잘 보내고 싶은 바람이 생긴다. 거기다 어느새 일 년도 반이 지난 이 시점,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새해를 맞이했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불러와 본다. 이번에는 독서를 꼭 해야지, 마음먹었다면 이 여름이 딱 좋은 기회다.

노원구립도서관에서 제안하는 책과 도서관의 추천 스팟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누구보다 근사한 북캉스를 보낼 수 있을 터! 아띠의 생일이었던 6월, 많은 구독자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었다.

글. 전은진(노원아띠 PM)

이번 여름은 도서관으로 복캉스 떠나볼까요?



노원구립도서관에서 추천하는 피서 스팟과 도서

이상기후로 장마는 자꾸만 길어지고 겨우 비가 그치면 잠 못드는 열대야의 시작이다. 짐 싸들고 훌쩍 떠나고 싶지만, 여름휴가는 짧기만 하다. 멀지 않은 곳에서도 색다른 기분으로 즐겁게 피서를 보낼 수는 없을까? 어린이도, 청소년도, 어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있다. 바로 도서관이다. 이번 여름, 도서관에서 특별한 피서를 맞아보는 건 어떨까. 노원구립도서관이 이용객들을 위한 특별한 피서 스팟과 도서,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글. 노원구립도서관·전은진(노원아띠 PM) 사진. 노원구립도서관

이번 여름에는 무슨 책 읽지?: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청소년 시절, 방학이 시작될 즈음이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시간별 세세한 스케줄을 짜곤 했다. 이번 방학은 학기 중에 시험 치느라 못 읽었던 책도 실컷 읽을 테다, 다짐하지만, 정작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는 몰라서 괜히 어려운 청소년 추천도서의 앞장만 펼쳐보다가 잠들기 일쑤. 좀 재밌으면서도 책 읽었다는 보람을 주는 책은 어디 있을까?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이 좋을지 고민하는 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름이니까 무겁고 진지한 책보다는 시원하면서도 여운이 있는 책을 읽고 싶다.

제각각의 고민을 지닌 청소년과 어른, 그리고 어린이 고객을 위해 노원구립도서관에서 맞춤형 추천 도서를 큐레이션해보았다. 여름의 풍경이 알록달록 담긴 그림책, 푸른 예술 속으로 빠져드는 에세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 여행기까지 다양한 책을 만나보자.

성인



우리 지금, 썸머
김다은 | 책폴 | 2022

“여름의 기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워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지금, 썸머>
출판사 소개 글 중에서

서로 다른 여덟 명의 작가가 제각기 지나온 ‘그해 여름, 우리들의 여름 방학’을 청량한 색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없을 그 여름의 추억을, 우정과 사랑과 상실의 순간을, 계절을 지나온 애뜻한 마음을,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했던 날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방학의 풍경을... 각각의 이야기에 담은 그림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여름의 여덟 가지 모습을 아름답게 펼쳐 보입니다.

청소년



풍덩! - 완전한 휴식 속으로
우지현 | 위즈덤하우스 | 2021

“우리는 쉬어야 한다.
삶을 위해 쉬어야 한다.”

<풍덩! - 완전한 휴식 속으로>
작가의 말 중에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100여 점의 다채로운 회화와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사유가 돋보이는 우지현 작가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 에세이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부터 파블로 피카소까지 다채로운 회화를 감상하며 완전한 휴식 속으로 “풍덩!” 뛰어 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는 “우리는 쉬어야 한다. 삶을 위해 쉬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읽는 이에게 진정한 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글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 안녕로빈 | 2020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고 싶었어요.
활짝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름방학 제주>
작가의 말 중에서

나은이가 떠난 6일간의 제주여행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여행 기행문이지만 동화책이자 가이드북의 요소가 가득합니다. 제주의 문화, 역사, 자연, 예술 등의 정보와 함께 여행 가방 싸는 법, 이야기 여행 코스 등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여름, 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나아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제주여행 선물! ‘여름방학 제주’를 추천합니다.

어린이 그림



수영이불
채희 | 사계절 | 2021

더운 여름날, 「수영이불」 책을 펼치는 것으로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파란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란 수영모를 쓴 아이는 수영을 마음껏 즐깁니다. 다채로운 파랑이 펼쳐지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마음이 포근한 이불이 되어 꿈을 선물합니다. 수영이불과 함께 꿈꾸는 여름을 보내세요.



시원하고 아늑한 북강스를 즐기러: 노원구립도서관의 피서 스팟

동네를 걷다 보면 언제 이렇게 예쁜 도서관이 많이 생겼지, 싶어 놀랄 때가 있다. 어린 시절의 도서관은 숨 막히는 열람실과 비좁은 책장 사이로 겨우 지나다니던 자료실, 그리고 투박한 식당이 전부였다.

필자의 집 5분 거리에 있는 불암도서관에 갈 때마다 새삼 놀란다. 이렇게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이라니, 이제는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서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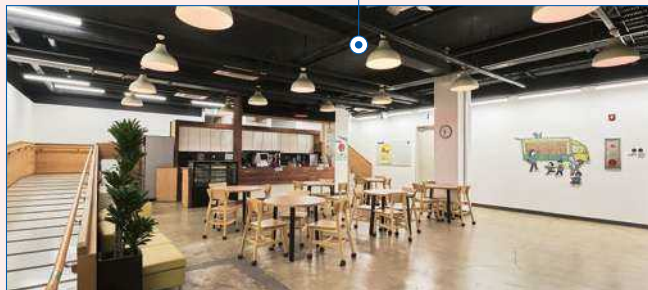
그렇다면 노원구립도서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피서 스팟도 있을까? 아직 못 가본 도서관의 특별한 공간들이 궁금해진다. 이번 여름의 목표로 우리 동네 도서관의 피서 스팟 도장깨기를 추천해본다.

노원중앙도서관 다인정답



책을 보아도, 창밖에 보이는
날씨의 변화를 눈에 가득
담아도 좋아요! 이번 여름은
노원중앙도서관, 해볼까요?

불암도서관 지하1층 카페



책 + 음악 + 커피 = 완벽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불암도서관에서
여유로운 피서를 함께 즐겨요!

노원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따로, 또 같이!
함께하고 싶다면 넓은 바닥에서,
혼자 있고 싶다면 1인 좌석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아요!



하계어린이도서관 모두의 정원



여름은 좋은데, 뜨거운 햇빛이 싫다면!
'모두의 정원' 그늘막 아래에서 여름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알찬 기획도 놓치지 말기: 노원구립도서관 7~8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부만 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강연이나 북토크뿐 아니라 영화도 보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었다. 이번 여름에도 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행사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달력에 표시해두자.

노원어린이도서관

7.9(일)
[책이랑 토크] 선미화 작가를 만나다

7~8월
어린이 북큐레이터

8.8(화)~10(목)
[방학특선] 어린이 씨네마

8.12(토)
김상근 작가와의 만남

불암도서관

7.15(토)
정지음 작가와의 만남

7.15(토)
[너에게 목소리를 보낼게]
이용신 작가와의 만남

7.22(토)
조용하던 도서관에서
기타소리가 들려온거야

상계도서관

7~12월
야호! 책놀이

7.16(일)~23(일)
엄마랑 책놀이터
아빠랑 책놀이터

7.25(화)~8.16(수)
애들아, 도서관에서 놀자

당신에게 딱 맞는 문학을 처방해드립니다

복합문학살롱 책방 봄 인터뷰



동네책방은 대형 서점과 달리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겨 있다.
그럼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 법. 화이트 인테리어에 모던하고 세련된 책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잔디를 깔고 캠핑 의자가 놓인 동네 책방 봄을 찾았다.
문학전문서점답게 유명한 소설, 시집부터 새롭고 낯선 문학들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핸드드립 커피 원두 8종, 저자 사인본도 200종. 동네 책방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와르르 깨버린 책방 봄의 재미있는 큐레이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사진. 전은진(노원아띠 PM)

**노원아띠 구독자분들에게
책방 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복합문학살롱을 지향하는 책방 봄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에 오픈했어요. 보통 문학전문서점이라고
소개하곤 해요. 책방 이름인 ‘봄’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
함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봄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찰
하다는 뜻도 있고요. 봄이라는 계절의 생동하는 이미
지, 청춘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책방을 이곳 노원역 인근으로
자리잡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 강북 지역이나 경기 북부 쪽에서는 책방이나
문화공간을 즐기러 나가기가 굉장히 멀잖아요. 적어도
혜화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
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홍대는 더 멀고. 그래서 이쪽에
도 문학과 관련된 허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노원과 연이 있어서 이곳에 자
리를 잡기로 했죠.



**책방에 방문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연령층이나 특징이 궁금해요.**

제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설가랑 시
인들이예요.(웃음) 아니면 작가 지망생이나 다른 계열
의 예술가들, 카피라이터, 편집자들이 책을 많이 구매
하시고요. 동네 산책 나왔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
요. 가족이 함께 오셔서 책을 골라가기도 하고, 대학생
들은 책이랑 굿즈 세트를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기도
해요.

**사실 동네 책방인데도 책방 봄은 공간이
꽤 커요. 지금 책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1만 2천 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먼
지 쌓인 책이 거의 없어요. 계속 들었다 놔다 위치를 옮
기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특별전을 해요. 지금은 상주
작가인 류진 시인님이 국가별로 큐레이션하고 있고요.
여러 출판사나 작가들에 따라 다양한 큐레이션으로 책
장을 돌려요. 키즈존은 키즈존대로 큐레이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위치가 계속 바뀌지요. 사실 책이 매
번 같은 위치에 있으면 몇 권밖에 눈에 안 띄어요. 다른
책들이 묻히게 되니까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뀔 때마
다 옮겨주는 거죠. 요즘 책방은 거의 적자긴 하지만, 저
희는 그래도 책이 꽤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책이 잘 팔리는 비결은 역시 큐레이션일까요?

고객이 오면 계속 그 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알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하겠나 싶으면 비슷한 류의 문학을 추천해주거나 반대로 새로운 걸 접하도록 추천해주지요. 어떻게 보면 책을 컨설팅하고 처방해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이 오 시거든요. 저는 문학에 치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술 치료하듯이 문학 치료도 있다고 여겨요. 문학은 베리에이션(variation)이 워낙 넓으니까 읽고 쓰면서 회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달 시인과의 만남이나 낭독회,
문학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기획은 자기님이 하시나요?**

저랑 상주 작가님 그리고 대표님이 함께 회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자체 행사를 하기도 하고 상설로 강좌를 열기도 해요. 시나 소설 창작 교실도 있고요. 이번에는 SF 소설 창작이랑 그림책 제작 강좌도 기획 중이에요. 서울형 책방에 선정되어서 8, 9월에 새로운 행사도 준비 중이에요.

문학을 넘어서서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 쪽으로 뻗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커요. 지금 공간이 크지만, 더 넓히



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피아노도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놓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피아노도 놓고 공연도 하려고 합니다.

**매달 책 추천도 하고 계시지요. 이번 여름에
읽기 좋은 책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웃음) 한 권만 추천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권을 준비해 보았어요. 최도는 작가의 「검검의 도시」는 그래픽 노블이 아닌 그래픽 에세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상력이 담긴 책이에요. 굉장히 시적이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박생강 작가의 「빙고선비」는 귀신 얘기라서 여름에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이갑수 작가의 「외계 문학 걸작선」은 소설집인데 외계인 얘기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면서 흥미로워서 이과생들한테도 추천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책방 볼이 이용객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친구집 놀러 가듯이 자유롭게 와서 책도 읽고 떠들기도 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네 놀러 가면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일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곳이면 좋겠고요. 책방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신기하게 일어나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연결되면서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저희가 바닥에 잔디를 깔고 캠핑 의자를 놓은 이유도 편안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황금빛 맥주 축제로!

‘노원수제맥주축제’로 향하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술이 있지만, 축제에 어울리는 술 하면 역시 맥주 아닐까. 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맥주가 주는 청량감은, 술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알 터. 하지만 맥주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맥주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다. 특히나 요즘은 브랜드를 만들어 저마다의 특색 있는 맥주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곳 노원에 무려 150종의 수제 맥주가 모였다. 맥주뿐만 아니라 노원 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페어, 그리고 공연들까지. 노원만이 할 수 있었던 노원수제맥주축제로 떠나보자.

글. 문준영(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문준영



수제맥주축제가 개최되는 철도공원 근처에 가자마자 벌써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입구에서 성인 인증 팔찌를 발급 받으며 입장이 시작된다. 귀여운 코스터는 덤. 팔찌를 끼고 본격적으로 축제에 들어서면 수많은 사람과 맥주가 우리를 반겨준다. 이제부터 진짜 축제 시작이다.

축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화랑대철도공원의 넓은 공간에 테이블, 의자를 준비해 둔 덕에 불편하게 서서 먹을 필요는 없었다. 시민들은 푸드트럭에서 산 음식과 맥주를 진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우선 여러 맥주 부스를 살펴보았다. 노원수제맥주축제를 대표하는 공식 대표 맥주 NBF 노원에일과 브로이하우스 바네 하임, 둘 중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온 일행이 말했다. 둘 다 먹자! 축제니까.



다양한 맥주들 틈에 곁들일 수 있는 푸드트럭은 대부분 지역 시장의 맛집 사장님들이 맡았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위하여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아무리 맥주가 맛있어도 안주 없이는 심심한 법, 여러 안주들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노원구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리 연합공연이 펼쳐졌다. 내 모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동아리도 나와서 반갑게 공연을 즐겼다. 즐거운 밴드의 공연과 함께 빛나는 햇살을 가려주는 가림막 밑에서 사람들은 술과 음악을 같이 즐겼다. 정말 주말다운 분위기에 모두가 행복하게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2023 NOWON BEER FESTIVAL

2023 NOWON BEER FESTIVAL

노원수제맥주축제

- 🕒 2023.6.2(금)~3(토)
- 📍 화랑대 철도공원

축제는 술을 못 하는 사람도 즐길 거리가 풍부했다. 노원 브랜드 페어존이 있기 때문. 이곳에는 노원구에만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 제품들과 상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 단위로 축제에 온 시민들이 이곳에서 여러 체험을 하고 상품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옆으로는 철도길이 뻗어 있어 잠깐 축제에서 벗어나 쉬러 오기도 좋은 공간이었다.

음악과 맥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맑았던 날씨까지 모든 것이 기억에 남을 축제였다. 앞으로 찾아올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많은 사람이 축제에 향해 몸과 마음을 식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 노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음식, 술, 공연, 브랜드를 구경하였다. 왜 '노원' 수제맥주축제일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당연히 노원만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따가 대신 다녀올게..

노원에서 세상을 감각하기

서울시립과학관: 과학이 영감이 되는 곳

유레카! 노원구 하계동에 서울시립과학관이 있다는 발견의 외침이다.
2017년 개관한 서울시립과학관은 노원의 청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세상을 여기에서 저기로 감각할 수 있는 경험을 마련해주고 있다.
여름의 푸른 하늘만큼 맑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마치 과학처럼, 나에서 출발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 나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때를 기억한다.
두 번 다신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을지라도,
‘지금’ 가도 좋았던 서울시립과학관에 대한 감각을 나눠보려 한다.

글, 사진, 조혜인(노원아띠 기자단)



전시실

→ 다섯 가지 색깔, 천 가지 얼굴의 과학

서울시립과학관은 스킵 플로어(Skip floor: 반층 구조)로 지어져, 층별로 크게 다섯 가지의 전시 공간과 테마를 가지고 있다.

1층에 들어서면 G 전시실에서 ‘공존’이라는 테마를 관람할 수 있다. 생물에 특화된 전시실로,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지 ‘초록’의 컬러로 구성된 공간이다. 루트 2층은 O 전시실이다. 사람의 체온인 36.5도가 발하는 따뜻함을 상기시키는 ‘오렌지’ 컬러를 통해 인체, 유전 물질 등 ‘생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사유해볼 수 있다.

2층에서는 B 전시실을 만나볼 수 있다. B 전시실은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진다. 교통, 뇌의 연결망, 별과 우주 등 광범위하면서 복잡한 시스템 속 과학적 원리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3층에는 R 전시실이 있다. 과학적으로 빨강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피’다. 피가 우리 안에 곳곳에 퍼져 에너지를 공급하고 삶을 작동 시키듯, ‘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Y 전시실에선 노란색을 컨셉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이 블록벽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리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Y 전시실은 y(1/2층)과 yy(2층) 총 두 개의 상설 전시실이 어린이를 위해 운영되며,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다.

이처럼,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의 명확한 주제 의식을 지닌 전시실을 통해 천 가지 얼굴의 과학을 경험할 수 있다.



Sci-Art 설치 조형물

→ 구조가 곧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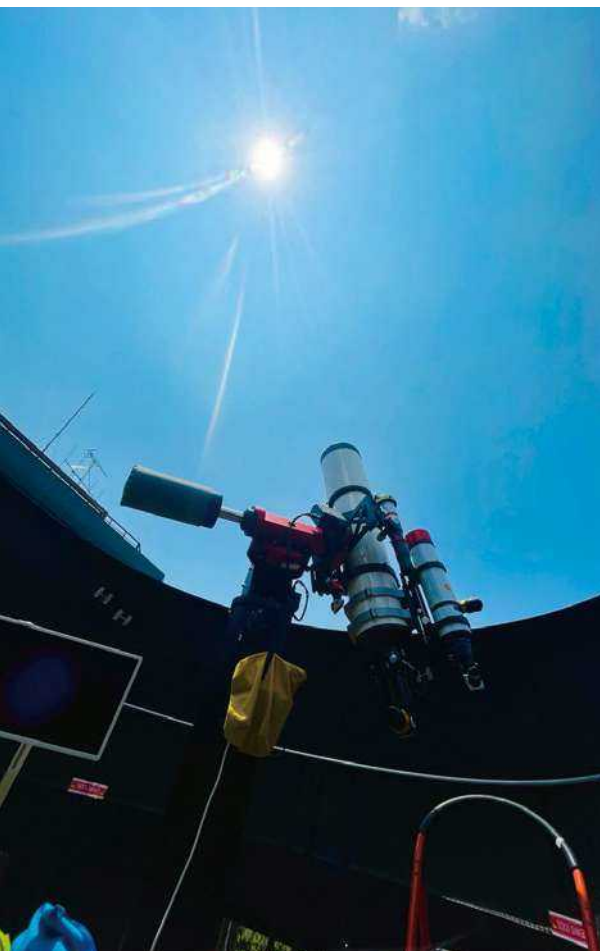
서울시립과학관 공간 곳곳에는 과학을 ‘형식’(Structure)으로 승화시킨 사이-아트(Sci-Art) 작품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아트는 관람객들이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가 곧 기능이다’(Structure is function)라는 과학적 금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잠시 생물학적 사고를 해보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및 DNA의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세계의 동, 식물을 초월하여 만물은 그 형태에 따라 기능을 한다. 과학은 예술과 같이 분명한 형태를 지닌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과학적 원리로부터 형식을 창조한 사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자의 주기에 따라 움직임을 바꾸는 조형물, 과학관 천장에 매달려있는 우주 토러스 조형물은 과학이 규명한 세계를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국한된 교과서 속 과학이 아닌, 과학 밖이라고 생각되는 예술이 과학과 만날 때 확장되는 감각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토네이도 라이브쇼

→ 토네이도를 경험해볼까요?

토네이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재해다. 그러나, 이처럼 보기 드문 토네이도를 노원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서울시립과학관의 전 층을 관통하는 토네이도 형성 장치가 작동되면, 어린이들이 풍선을 기류에 휘리릭 올린다. 토네이도를 타고 풍선이 날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실은 어떠한 흐름을 형성한 채 존재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관람이 가능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토네이도의 흐름에 마음을 띄워 올려보자.





서울시립과학관

-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 <https://science.seoul.go.kr>
- ☎ 02 970 4500
- 🕒 9:3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나가며

→ 과학이 영감이 되는 곳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의 곳곳을 누벼보았다. 그러자 ‘과학관’이 주는 어떠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과학관은 그 목적이 다소 뚜렷한 미술관 및 박물관과 다르게, ‘도대체 과학관에서는 무엇을 하지?’와 같은 질문이 뒤따르는 곳이다. 또한, ‘과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성적이고 학구적인 이미지는 과학관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서울시립과학관에 방문하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과학이 주는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

박윤실 과학해설사는 ‘공부라기보다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 서울시립과학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편안한 과학적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어떤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고, 삶의 식견이 넓어질 수 있다.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을 통해 관람객이 얻고 갈 수 있는 것이 많기를 바란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미래의 노원 과학자가 배출되는 창조적 장이다. 과학을 통해 또 다른 풍부한 생각이 생겨날 수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넓은 세상을 만나고, 또 ‘나’라는 깊은 세상을 만나 보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OOT 천문대

→ 우주를 향한 항해

서울시립과학관에는 ‘BOOT’(부트)라는 천문대가 있다. Boot는 동사로 ‘작동을 시키다’라는 뜻인데, 이 뜻과 서울시립과학관이 위치한 터가 옛날에 ‘붓고을’이라고 불렸던 것에서 착안해 ‘BOOT’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BOOT는 배 모양의 천문대로, 방문객들이 우주로 항해하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내는 공간이다. 양문 개방형 천문대로, 망원경(쌍안경)을 통해 낮에는 태양을 관찰 할 수 있다. 태양 필터를 통해 흑점, 표면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노원 서울시립과학관에 있다. 자, 이제 BOOT 천문대로 와서 우주를 향한 항해를 떠나보자.

기웃기웃 이웃과 동네에 관심을 가지며 시작되는 우리의 생활 속 문화

6월의 ‘월간 기웃기웃’ in 동네책방 책임감

6월 26일 비가 내리는 아침,
경춘선 숲길을 따라
공릉 도깨비시장 옆 동네 책방 책임감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다.
<월간 기웃기웃>의 6월 모임을 위해서다.

글. 사진. 문화진흥부, 박현근·최누리(생활문화 PM)

a.k.a 기동맘 • 문화진흥부 이은지



<월간 기웃기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기웃기웃 동네탐방대 ‘모두의 놀터’ 프로젝트 소통 모임으로, 노원 곳곳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 중인 민간협력단체 대표 6인이 모여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친밀한 공동체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다. 기웃기웃 동네탐방대를 이끄는 프로젝트매니저 그니와 누루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임의 기록을 전한다.



a.k.a 누루 • 프로젝트매니저 최누리



4월부터 시작한 <월간 기웃기웃>은 공간의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호스트가 되어 자신의 공간에 모두의 놀터 멤버들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공간의 소식, 모두의 놀터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취미, 육아 등 개인적인 근황들이나 동네 생활정보들을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마무리한다.

계단을 올라 2층 책방에 들어서니, 책임감의 주인 이철재 대표와 지난달 모임에도 가장 먼저 도착한 극단 기적의 이정은 대표가 읽던 책을 내려놓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극단 기적은 뮤지컬 가스펠을 바탕으로 노원구민이 직접 취재도 하고 배우가 되어보기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뒤이어 쉼어공방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우크반의 한기홍 대표, 기웃기웃의 큰 형님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김병호 대표, 공릉동 움직이는 커뮤니티 로컬랩의 김동환 대표가 차례로 모였다. 주다르 예술공방의 조연미 대표가 지난달 월간 기웃기웃에서 진행하였던 백드롭 페인팅 작품을 양손 가득 들고 왔다.

이날은 이철재 대표가 동네 책방들의 운영 방식, 도서 판매 외의 교육, 모임 등의 활동과 몇 년간의 동네 책방의 추이를 분석적인 자료들과 전국의 다양한 이색 서점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를 준비하였다. 책임감의 강점은 강의라고 말하는 이철재 대표는 동네 책방 관련 강의 외에도 엑셀 강의, 세무 관련 강의, 지원사업 강의 등 자영업자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이색적인 책방 소개 시간은 방대한 양의 책방 정보와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책방이나 북스테이와 더불어 여행계획까지 상상하며 듣게 되었다. 강의의 후반부임에도 다들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에 저장하고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작된 <월간 기웃기웃>의 원칙! 이야기는 들은 만큼 나눠야 한다! 한 명씩 차례로 자신의 공간이나 모두의 놀터 프로그램 진행 상황, 개인적인 근황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는 들은 만큼 나눠야 제맛! 서로의 이야기에 기웃거리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풍성해졌다. 이날의 주요 뉴스로는 로컬랩의 노원수제맥주축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공릉동 동네 모임 이야기, 인기폭발 주다르 예술공방의 ‘자연아 예술 하자’ 프로그램 이야기, 우크반의 영상 기획회의 내용 공유와 바쁘다바빠 6월 이야기, 이정은 대표와 김병호 대표의 대학로 시절 극단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7월 <월간 기웃기웃>은 수락산역에 있는 목공방 우크반 한기홍 대표가 호스트로, 레진아트를 체험할 예정이다.

a.k.a 그니 • 프로젝트매니저 박현근



이번 모임에서는 경춘선숲길 산책로 옆,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동네 책방 ‘책인감’이 호스트가 되어, 책방이라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일의 이모저모와 각양각색의 ‘동네 책방’ 문화를 소개해 주었다.

미술 놀이의 시간이 있는 월계동의 ‘주다르미술공방’ / 목공 작가들의 활동과 성장을 돕는 상계동의 목공방 ‘우크반’ / 월계동의 극장 ‘로즈아트홀’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무대에 펼쳐내는 ‘극단 기적’ / 공릉동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동네의 사람과 활동을 연결하는 ‘로컬랩커뮤니티’ / 지역의 생활문화 축제를 이끌어 줄 ‘스쿨씨어터 협동조합’ 등 각 협력 단체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노원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담당자들까지, ‘모두의 놀터’에 함께하는 저마다의 소식과 더불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롭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사업의 주최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네트워킹 모임의 현장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다양한 활기로 빛나는 ‘기웃기웃’의 시간은 화사했다. 그동안의 소통과 지난 두 번의 모임을 거치며 익숙해진 듯, 대화는 점차 편안하게 느껴졌고, 함께하는 구성원 저마다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만나 볼 수 있었다. <월간 기웃기웃>은 단지 사업을 위해 만나는 건조한 자리가 아니라, 유연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공동체 모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덕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어질 다음 모임도 새롭게 기다려진다.

지역 곳곳의 문화공간은 동네의 소중한 ‘놀터’이다. ‘모두의 놀터’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어질 활발한 만남 속에, 함께하는 모두는 ‘탐방대원’의 시선으로 여행하듯 새로이 ‘기웃기웃’ 동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다. 그렇게 이곳저곳 다양한 공간을 거점으로 ‘놀이’처럼 즐겁게 펼쳐질 생활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소하고도 다채로운 공동체의 일상을 함께 빛어낼 전망이다. 그렇게 튼튼해진 공동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웃과 만나는 시간은 아름다울 것이다. 나아가 노원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실감하며 함께 만들어 가게 될 축제의 시간 역시 기쁜 설렘으로 마주하게 된다.

← 아띠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

중랑천환경센터와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유아부터 성인까지,
개인 단체 모두 교육 가능한
중랑천환경센터 프로그램

중랑천환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경과 계절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노원아띠>에서 소개한 조조탐조, 수달과 함께 밤을,
도시어부, 버드 프렌즈, 개구리는 내 친구 등
개인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노원아띠> 7월호에서는 중랑천환경센터에서
중학 대상으로 진행한
‘중랑천 노케미(no-chemi) 교실’을 소개한다.

글. 사진. 이권화(노원문화PD 1기)



중랑천환경센터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 지구는 이상 기후를 넘어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후 위기는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해, 이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이에 노원구립 중랑천환경센터에서는 우리의 생활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 수자원, 생물다양성, 하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하천 환경 교육의 중심이자 하천 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 교육 시설이기도 하다. 2016년 5월 개관 이후 중랑천의 수질·환경정화·생태 모니터링을 지역 교육 기관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강사진들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은 2018년경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 중 물사랑 환경교실, 수생태 체험교실, 어디 있니 동물들아!, 구해줘! 수달홀즈, 6번째 대멸종을 막아라!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2022.12~2025.12)으로 지정되었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상도 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누어 적정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센터에서만 아니라 학교 및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환경교육을 위해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랑천 수(水)호대’를 모집해서 학교 및 단체 기관을 통해 하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응답하듯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중랑천환경센터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한 총인원은 19,254명에 달했다. 2023년 5월까지 진행된 320건의 프로그램에 6,592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작년 5월 기준 310건의 5,420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아진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랑천 노케미(no-chemi) 교실' 프로그램으로 노케미(know-chemi) 하다

중랑천환경센터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랑천 노케미(no-chemi) 교실'이 학교와 연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랑천환경센터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최소화한 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여명의 학생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생활 하수의 개념부터 시작해 우리가 무심코, 또는 필연적으로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하천의 수질 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 속에서 유해 물질을 줄이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화학 성분에 노출되고 있다. 청결하고 산뜻함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제와 탈취제가 어떻게 다중화학물질과민증을 일으키는 지,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경로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화학 물질을 덜 사용하고, 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천연 섬유탈취제와 립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연 재료로 만든 탈취제와 립밤을 만드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만드는데 번거롭지도 않았다. 탈취제를 만들어 옷에 뿌려도 보고, 굳힌 립밤을 입술에 발라도 본다. 노케미 수업은 학생들이 소감을 발표하며 끝이 났다. 노케미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니 기분도 상쾌하다. 생활하면서 환경과 우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실행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은 8차시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는 중랑천환경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의해보면 좋겠다.

아띠에 도착한 구독자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

‘노원아띠’의 세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원아띠’는 노원구민에게 문화 예술 무대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 주는, 전서구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구민의 ‘믿음직한 친구’이기도 하겠고요. 앞으로도 문화 예술로부터 소외된 노원구 사회적 약자 분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고요. 비단 노원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문예 소식지로서 오래오래 남아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아띠 구독자 김완수 님

노원구에 살면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접하기 힘들었던 작가의 북토크부터 유명한 화가의 작품까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매일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다녀가는 주린이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강 작가와 <연년세세>의 황정은 작가를 볼 수 있었다는 건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답니다. 한강 작가님이 북토크 기획자의 마음에 감동해서 왔다는 소감을 들었을 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행사를 준비하는 정성이 저에게도 느껴졌거든요. 올해도 풍성한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아띠의 3주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원아띠 구독자 AnneWith 님

지난 6월, 3살 생일을 맞은 노원아띠에게 구독자들이 무수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노원아띠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기쁜 생일 선물이 되었다. 그 중 특별한 메시지를 소개해본다. 축하해준 모두들 고마워요!

노원아띠 웹진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읽는 동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화,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작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진솔하게 표현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자로서 웹진을 읽으면서 매번 새로운 영감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노원아띠 웹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훌륭한 작품과 이야기로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원아띠 구독자 관사마 님

인생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공백기간. 백수가 되었다. 이때 뭐든 채우고 싶은 마음에 주변을 마구 돌아다니다 보니 노원아띠가 만든 작은 공방 속 이야기, 사람들이 만나고 채워지는 이야기를 보며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3년이나 이 행복한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니, 나는 3년동안 집과 회사만을 반복해 왔었는데 묘한 부러움과 낯섬이 있다. 그러나 나도 텅 빈 마음속에 노원아띠를 채워넣고 행복해졌듯, 아띠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는 바이다. 같이 행복해지자! 고마워 아띠야. 3살 축하해.

노원아띠 구독자 이준열 님